

성도의 빛 2

“Sôngdowi-Bôt”



성도의 벗

제 4권 제 1호

순서

1968년 2월호

권두언.....배일문... 1
 대관장 말씀.....데이비드 오·맥케이... 4

왜 교회안에서 결혼해야 하는가?휴비·부라운...10

잃은 양을 찾음시다.....이호남...16
 물문경에서 얻은 느낌.....이중환...18
 교리문답.....21
 ■ 사망의 골짜기로 ■22
 군인 형제에게 위문 편지를 보냅니다.....30
 지부소식.....32
 성도의 벗 퀴즈(제 11 회).....37
 전주 기행문38
 교회의 복장 표준.....42
 교회 음악에 관한 지시사항45
 동교동 177 번지를 찾아서.....손화선·박옥희...48
 멀리있는 성도들오계희...52
 <성경동화> 아브라함과 죽음의 바다.....박찬주...55

표지설명 : 새로히 조직된 남부 지방부장단. 이에 관한 소식은 다 음호에 실습니다.

우리의 當面 課題 진정한 봉사



선교부장
배 일 문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야고보서 4장 17절〉

교회의 모든 역원과 선교사가 마땅히 받아들여야 할 임무를 성실히 지키기만 하면 교회 표준에 명시된 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할리가 없습니다.

적어도 개인에게 맡겨진 직책과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일하겠다는 적극적인 요구는 지켜져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사도의 직분을 맡게된 알빈 알 다이어 장로님은,

“진정한 봉사에 대한 우리의 當面課題는 福音의 힘으로 사람들의 생활을 감동시키고 이로써 저들을 개선시켜 마침내는 저들로 하여금 나아가 남을 위해서 봉사할 준비를 갖추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과된 사명을 놓고 볼때, 이 지구가 있는 이래 말일 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받은 임무야 말로 이 세상 사람이 받은 것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는 이러한 우리의 사명을 교리와 성약 45 장을 빌어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계십니다.

첫째, 福音이 회복되었고 세상의

빛이 될 성악이 주어졌다고 하는 점입니다.

환언하면, 하나님의 영이 지상의 모든 영육에 부어져 우리가 “빛의 세대”라 일컬게된 시대상을 조성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주의 백성의 표지를 삼기 위하여 교회가 내적으로 강건해진 사실입니다. 이것은 말일 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성도된 우리에게서는 참된 봉사를 요구하는 부름을 뜻하며 이 부름의 결과로 다른 회원이 하나님 아버지의 왕국에 거할 특권을 쟁취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개개인이 “나는 나의 형제를 지키는 자다”라고 하는 이념을 지니고, 소집 프로그램이나, 그밖의 비활동 회원을 활동 회원으로 만드는 효율적이고 강력한 계획을 통하여 부름의 뜻을 다할 때에 비로서 교회는 내적으로 강건해 지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이방인도 이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성도가 모두 선교사로의 자세를 가누고 범 세계적인 전도 활동을 지켜나갈 때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는 인간으로써, 하나님

의 예언자가 지시하는 대로 우리와 이 세상을 주가 재림하시는 때에 대비하여 준비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일 우리 모두가 이상 열거된 임무를 이룬다고 하면 우리의 사명감이 약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풍만한 물몬의 유산과 계시된 지식이 마련해주는 기회를 민첩하게 포착 활용하여 이를 가진 자로의 잇점을 살리고 동시에 향상을 꾀해야겠습니다. 절대로 오늘이나 내일을 두려워해서는 안됩니다. 세칭 공포의 시대라고 하는 이 핵의 시대가 우리의 안정이나 신앙이나 참된 방향으로의 이해를 방해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교회내에서 우리가 봉사하는 주변을 거룩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내에서 이야기하는 참된 봉사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의 명예를 내세우지 않는,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성질의 것이라야 합니다.

1830년 8월, 주가 펜실바니아주 하모니에서 요셉 스미스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에 하나님의 종으로의 봉사와 자세가 집약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운을 내어 기뻐하라.

내 허리 띠를 동여 매며 나의 온전한 갑옷을 입어 악한 날에 건달 수 있게 하고 모든 일을 수행하여 굳게 설 수 있도록 하라.

그러므로 진리로 너희 허리 띠를 동여 매며 가슴에는 의의 가슴판을 달며 내가 너희에게 보낸 나의 천사가 맡긴 평화의 복음의 준비로 신을 신고 일어서라.

왼 손에는 악한 자의 불 화살을 날 날이 끌 수 있는 신앙의 방패를 가지며,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바른 손에는 내가 너희에게 부여할 성령의 검을 들고 입에는 너희에게 계시할 말씀을 가지라. 또 너희가 내게 간구한 것은 무엇이든 주는대로 다 만족하며 내가 올 때까지 충실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이끌려 올라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되리라.”

〈교성 27 : 15~18〉

이 말씀을 설명하시면서 다이어 장로님은 세상에는 이 말씀을 잘 못해석하여 종교로 자기의 띠를 삼고 자기 존경에 마음을 둔 사람이 많음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사람

들은 허울좋은 박애주의의 신을 신고 머리에는 휘황 찬란한 독수리 모양의 애국가 두건을 쓰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그 왼 손에 세속적인 성공의 패말을 들고 오른 손에는 영향력의 검을 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림으로 이들은 악의 날을 대비하여 할바를 다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교회의 신권 소유자와 보조 조직의 역원과 선교사 여러분! 여러분의 역원으로의 기회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도달한 보다 차원 높은 세계의 모습은 아직은 드러나지 않았읍니다.

참된 용기와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닥아온 임무를 맡도록 하지 않겠읍니까? 인간의 영혼을 구제함에 있어 여러분에게 주어진 부름의 뜻을 다함으로써 주를 봉사하도록 하십시오.

우리의 능력과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왕국을 건설하는데 이바지 함에 있어 주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를 조금이라도 어기지 않도록 努力합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찌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니신줄 너희도 알찌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시편 100 : 4, 3)

제가 전 세계의 선교부와 스테이크에 있는 교회 회원들과 만났던 일들을 생각해 볼때 나의 마음은 감사함으로 가득합니다. 그 자리에서 자리를 같이 하여 예배순서에 임한다든가 스테이크나 지부건물을 헌납하고 사람들과 섞이어 악수를 나누는 일은 큰 특권이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어려해 동안 쌓아온 그들의 믿음과 충성을 감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지난 이, 삼년 동안 저를 위하여 그들이 드린 기도는 교회 대관장 직분으로서의 모든 의무를 원만히 수행해 나갈 수 있었다는 것을 절실히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큰 힘이 되었습니다.

마음과 영혼에서 우러남

여러해 동안 세계 선교 지역을 여행하면서, 저는 선교사들의 간증에서 많은 위안과 민족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간증한 것은 선교의 기회를 통하여 견해를 넓혔고 참된 생활 철학을 견고히 할 수 있었음에 감사하고 복음을 감사하는 것이었으며, 이는 진정 기쁘고 신앙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물론교에 대하여 무지하고 편견적이며 냉소적인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들 청년들이 하는 간증과 그들의 부모 특히, 그들의 어머

감 사

대관장

데이비드 오·맥케이

나에게 드리는 감사의 말씀을 들어 보았으면 합니다. 비록 그들이 아무 것도 알지 못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른 어떤 방법으로 보다도 더 명확하게 교회의 참된 목적과 또한 교회 회원들의 생활을 알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 간증회를 그렇게도 인상깊고 잊을 수 없게 만든 것은 선교사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께 드린 감사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한 일을 말할 때 눈물을 흘리며 사죄를 한 것은 한 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죄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 눈물은 단순히 성실한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나는, 이상적인 가정을 세우고, 어린이를 보살피며, 부모님과, 서로간의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키우는 데, 가장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되는 교회가 목적인 이상에 감사합니다.



가정이란 가족기도가 열리는 곳입니다. 저는 일반적인 기독교계에서는 그것을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교회내에서도 가족기도에 태만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참된 말일 정도의 가정이라면,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일하거나 학교에 가기 전에 매일 아침 기도를 가질 것이며, 밤이 오면 감사의 기도를 드릴 것입니다.

저는 부모에 대한 어린이들의 존경과 사랑이 있는 가정이 있음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행복으로 가정을 이끄는 부모와 어린이들에게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에서 우리나라는 진정한 감사는 외형적인 감사보다 훨씬 깊은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밀로 고마움을 표현할 수도 있으나, 그 감사함은 마음과 영혼에서 우리나라 오는 것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백만장자 입니까?

어린이들과 청년들 중에는 외형적 인 감사와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감사의 중요성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축복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하고 살아 가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어린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인생 칠십년을 산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우리는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지도 못하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여러번 어린이들 앞에서 말한 적이 있었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나는 이렇게 많은 백만장자들과 만난 것을 기쁘게 여깁니다.” 놀라고 의심에 찬 그들의 표정을 보며 저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백만장자가 아닙니까?”

아니, 그들의 몇은 매우 가난하다고 생각했는데 백만장자로 고발당한다(이말은 고의로 사용한 것이지만)는 것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중에 몇분이 어머니가 계십니까?” 어머니가 있는 사람은 모두 손을 들었습니다. “자, 내가 그 어머니를 사려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여러분에게 1,000 달러를 주겠습니다.” 그들은 머리를 가로 저었습니다. 이때에 그들은 거래, 진정한 의미에서의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10,000 달러, —100,000 달러—200,000 달러를 주겠습니다.” 이렇게 되자 그들은 내가

어머니를 사려 한다는 것에 대해 거의 분개했습니다.

“여러분 중의 몇 분이 아버지가 계십니까? 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버지를 1,000 달러에 팔겠습니까? 싫어요? 10,000 달러—100,000 달러에는? 싫습니까?”

“여러분 중에 몇분이 작은 아기 동생이 있습니까?”

그들은 작은 아기가 그들의 생활에 가져올 수 있는 가치와 행복을 결코 돈으로 따져서 생각해 보지 않았읍니다. 작은 아기에게 얼마나 숭고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그러자 나는 어린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원했던 것이라 해도 또 내가 여러분에게 수억의 금을 준다고 해도, 여러분은 어머니나, 아버지나, 아기 동생을 팔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도 없으려니와—어머니도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참다운 부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느날 나는 사형 집행을 당하려는 사람에게 관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범죄인은 그의 눈을 장님에게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눈을 이식받으려 한 그 시력없는 사람의 감사함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여러분은 눈이 가졌다는 것에 무릎을 꿇고 주님께 감사해 본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눈 하나를 5,000 달러나 10,000 달러

혹은 100,000 딸라에 팔겠습니까? 아
니, 안하시겠지요.

여러분의 청각에 대해서 생각해 봅
시다. 여러분의 귀를 팔았다고 합시
다. 그러면, 여러분은 새 노래도 들을
수 없습니다. 집회에 나가 아름다운
합창 소리도 들을 수 없습니다. 여려
분은 5,000 딸라나 그 이상을 받고 여
러분의 청각을 팔 수 있습니까? 아
닙니다!

여러분의 눈과 귀를 그대로 두고 잠
시 여러분의 팔을 빌려 봅시다. 여려
분은 왼손으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아니라구요? 한손만으로는 할 수 없
겠죠. 우리는 하나씩 하나씩 계속해
가므로서 곧 모든 어린이는 백만장자
라는 것과 우리의 참된 부는 하나님
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있다는 것
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축복
을 헤아려 보고 주님께서 하신 일을
알아 봅시다.

실제 이야기

저는 실제의 이야기를 함으로서
이를 강조해 보겠습니다. 여러해 전
에 한 미국인 가정에 예쁘고 작은 여
자 아기가 태어 났습니다. 팔위에 놓
여진 작은 아기를 어머니가 맨 처음
보았을 때 아기는 신체적으로 완전했
습니다. 그것은 모든 어머니가 바라
는 바였습니다. 그 팔에 첫 아기를 안
고 있는 어머니와 완전한 아기로, 이
세상에서 가장 무엇인가 영적인 것을
느끼게 하면서도 아름다운 그림입니

다. 이는 위대한 화가의 소재가 될 그
림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모
든 어머니들과 같이, 이 어머니도 행
복했고, 작은 아기가 세상에 태어날
때 치른 희생과 고통을 잊을 수가 있
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기는 하늘에서
내려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 아기는 두살인가 두살 반이 될때
까지 예쁘고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그
러자 어느날 아기는 심한 열에 들뜨게
되었습니다. 여러 날동안 아기는 생
과 사를 넘나 들었습니다. 부모나 그
를 굉장히 아끼던 다른 사람들은 거의
아기의 생명에 대해서 절망하게 되었
습니다. 그러나 어느날 밤중에 열은
내리기 시작했고, 이 어린 아이는 회
복할 기미를 보여, 모두가 기뻐했습
니다.

아기는 조금씩 영양을 취하기 시작
했고 힘을 얻어, 모든 가족은 기쁨에
넘쳤습니다. 그러나 어느날 어머니는
두려운 생각에 사로 잡히게 되었습
니다. 어머니는 어린 아이의 눈 앞에서
그 손을 흔들어 보았으나, 깜박이지
않았습니다. 열이 시신경(視神經)을
앗아갔던 것입니다. 그러자 두번째 꿈
포가 어머니의 마음을 사로 잡았습
니다. 어머니는 아기 장난감을 잡아서
아기 뒤에서 딸랑 딸랑 소리를 내었
습니다.

그러나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작은 아이는 귀머거리였고, 장님에다
병어라 었습니다. 자, 그 어머니가 들
는 것이라든가 혹은 보는 것이든 그

중 하나라도 돌려 받게 하기 위해서 무엇 줄 수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장애의 극복

아버지와 어머니의 낙담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전문가들의 의견과 도움을 청했지만, 모든 것이 허사였습니다. 그 작은 어린 아이는 일곱살 때까지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고 자랐습니다. 우리 안에 든 명랑하고 발랄한 카나리아가 다만 신체적인 결함으로 그를 표현해 낼수 없는 것과 같이, 그 어린 아이의 몸 속에 있는 쇠 우리를 깨트려 버릴 수 있는 선생을 부모들은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네는 머리가 곱슬 곱슬한, 소꿉놀이 친구의 머리를 만져 보곤했습니다. 그네는 무언가를 느끼자 자기 머리를 만져보고 왜 차이가 나는가를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표현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네의 손은 어머니의 얼굴을 더듬었으나, 어머니를 지적해 낼 수도 없었고, 그 아름다운 얼굴을 표현해 내지 못했습니다. 부모의 부름에 응해서 온 한 장님선생은 “그네가 만일 들을 수만 있다면, 무언가 좀 할 수 있을 텐데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귀머거리인 선생을 보냈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만일 볼 수만 있다면, 가르칠 수가 있겠지만,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다면, 도리가 없는데요.” 마지막으로 장님과 병어리를 돌봐 주었던 한 젊은 여성이 말했습니다. “최

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여선생은 여자 아이의 인형을 잡고 그네의 손바닥에 「인형」이라고 쓰고, 그를 되풀이 했습니다. 작은 소녀는 참지 못하고 인형을 마루에 내던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선생은 현명했습니다. 여선생은 인내심을 잃지 않았습니까. 선생은 어린이를 샘가로 데리고 나가 흐르는 물속에 어린이의 손을 집어 넣고 다른 한 손에 「물」이라고 썼습니다. 그러자 문득 어린이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 손에 쓰여진 이 이름들은 내 손이 느낀 것과 같은 것일까?” 그네는 자신의 손을 내밀어 같은 글자를 받았습니까. 집으로 돌아오면서, 그네는 장미를 만졌고, 그네의 손에 「장미」라고 쓰여 졌습니다. 그네는 부러진 인형의 조각을 모아서 손을 내밀어 「인형」이라고 쓰여 졌습니다. 그네는 어머니에게로 가 손으로 어머니의 얼굴을 더듬어 보고는 처음으로 「어머니」라는 글자를 받았습니까.

헬렌 켈러

손 바닥에 써서 의미를 안 경험을 가진, 이 작은 소녀는 몇년 후에 말하기를, 세, 네 가지 단어를 배운 그 날밤 침실로 가는 층계를 올라 가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라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이제는 여든 살이 넘은 헬렌 켈러를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네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곱 여인중의 한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그 분이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선생이 낮이나 밤이나 일러 준 표지를 익혔고, 선생은 항상 곁에서 떨어지지 않았읍니다. 헬렌은 언제나 그를 “나의 선생님”이라 불렀읍니다. 그분은 선생이 “어머니”라고 말할 때 선생의 인후부에 손을 대고 인후부와 입술의 움직임을 느끼므로써 말하기를 배웠읍니다. 그리고 나서 그네는 “어머니”라는 똑같은 소리를 내보려고 애를 썼읍니다. 그래서 그네는 영아뿐 아니라 불어와 다른 외국어 하나를 더 말할 수 있었읍니다.

제가 주일학교 회장이었을 때, 우리는 헬렌 켈러를 쏘트 레이크로 초청해서 어린이들에게 말씀하실 기회를 드린 일이 있습니다. 장님이었고, 귀머거리였으나 말은 할 수 있었읍니다. 그분은 강연 장소에 모인 칠백명이 넘는 어린이들에게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연설했읍니다.

후에 그분은 전 세계를 여행했읍니다. 각국의 왕, 여왕, 위인들의 환영을 받았읍니다. 미국 대통령의 대접을 받았읍니다. 수많은 영예와 학위가 그분에게 주어 졌읍니다.

여러해 후에 쏘트 레이크시를 방문하여 태버나클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네가 청중들 앞에 나서기에 앞서서 총관리 역원이 출입하는 옆의 방에서 있을 때, 올겐은 연주되기 시작했고, 그러자, 장님이요, 귀머거리

였으나, 말을 할 수는 있었던, 그네는 “올겐!”하고 말했습니다. 그네는 기둥 하나를 만져, 촉감을 통해서 올겐의 선율을 들었던 것입니다.

이를 만방에 알립시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부유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의 부를 많이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주권이나 채권과 같은 돈보다도 더 값있고 훨씬 가치 있고 훌륭한 것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감사하지 않고, 어머니, 아버지, 형제와 자매 그리고 다정한 친구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지냅니다. 그가 주신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건강과 정력과, 능력, 과 특히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 할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러한 것이 참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간증합니다. 이를 세계 만방에 알립시다! 그리하면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휩쓸어
 잃은 것을 생각해 낙심할 때
 네가 받은 복을 모두 세어라
 주의 크신 복에 네가 놀라리
 —아웃만—

하나님께서서는 그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감사하는 데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명을 같이 하지 말라”(고린도 후서 6:14)

몇몇의 우리 교회의 청년들이나 다른 사람들 중에는, 말일 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만이, 회원들은 교회 안에서 결혼해야 한다는 주장을 유난히 내세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의아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의 지도자들도, 몇 세기를 걸쳐 내려 오면서, 같은 신앙안에서 결혼하도록 회원들을 충고해 왔다는 것을 그들이 알면 흥미있을 것입니다.

각국의 천주교나 신교도, 유대교 지

도자들은, 서로 신앙이 다른 사람들 간의 결혼 생활은 흔히 별거나 이혼으로 끝난다는 데 의견을 일치시키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문제에 관한 여러 나라의 연구 결과는, 이혼이나 별거의 기회도 같은 신앙을 가진 부부보다 신앙이 다른 사람들 간의 결혼에서 두배 혹은 한배 반이나 더 많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들 연구 결과는 더 나아가서, 그러한 결혼이 이혼이나 별거에 까지 이르지 않는다고 해도, 종교적인 의견이나 확신에서의 차이가 불행의 근원이 되고 있다는 것

왜 교회안에서 결혼해야 하는가?

부 대관장 휴비. 부라운

을 보여 줍니다.

그런 결혼 생활상태에서, 더구나 한 쪽이 종교를 갖고있거나 혹은 양쪽이 서로 다른 종교적인 확신을 고집한다면, 특히, 자녀들이 가정에 있게 된 이후에도 양쪽에서 기꺼이 함께 종교적인 생활 습관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한 쪽이나 다른 쪽에서 양보해야만 할 시기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들이 단일 전자의 경우를 선택한다면, 이 또한 그들의 자녀들은 어떤 교회 의식도 갖지 못하고 자라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을 만한 통계는 부모가 모두 천주

교도인 자녀의 92퍼센트가 천주교도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부모가 모두 신교도인 경우는 그들 자녀의 68퍼센트가 신교도였으나, 부모 중 한분은 천주교이고 다른 분은 신교도인 경우는, 오직 그 자녀의 34퍼센트가 하나의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평범한 결혼 생활에서도 서로 조정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근본적인 차이점을 가지고 시작한다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일입니다. 게다가 종교적인 차이란 가장 근본적인 것입니다.

연에 증인 젊은 사람들은 서로가 감정적인데 일치할 수만 있다면 다른 중



교는 사소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이는 실제 경험에서 볼 때 사실이 아닙니다. 우정은 종교적인 장애를 넘어서도 계속해 가기 어려운 것은 아니나, 결혼 생활에서 성공하자면, 정신적, 감정적, 영적인 화합이 필요하며, 남편과 아내 사이에 완전하고도 만족한 결합이 없이는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조화가 결혼생활에 전반적으로 스며들게 되면, 다른 차이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교회에 적을 둔다는 것은 한 건물의 기초부터 지붕끝까지 틈이 생기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종교적인 차이로 해서 야기된 말다툼은 일반적으로 특수한 종교적 믿음이나 관점에서 그치기 보다 더 넓은 영역에서 서로 충돌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서로 조화하기 위해서, 부부가 어떤 교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해도 그들은 이전의 종교적인 훈련이나 교화된 습성이나 인간적인 가치 기준의 잔재가 남아 있어 매일 매일의 생활 문제를 복잡하게 하고, 또한 약화시킬 것입니다.

정통 유태교에도 매일의 생활에서 법규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천주교는 교회의 권위와의 복종을 요구하는 반면, 신교는 일반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느 종교적인 집단이요 그곳에서 자란 대부분의 청년들은 그들의 어렸을 적 경험에서

많은 영향을 받으며, 만일 그들이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과 결혼해서, 가족을 이끌게 된다면, 근본적인 문제점은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말일 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서는 교회 안에서 결혼해야 할 부수적인 혹은 근본적인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말일 성도의 회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회복 되었다는 것과 그들은 그 계명에 따라서 살고 그 교리와 생활 방식을 가르쳐야 할 신성한 임무가 주어졌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들 자신과 자녀들에게 진실되지 않고서는 가르치지도 화목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계명과 교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은 신의 계시에 의해서 모든 회원에게 부과된 의무이며, 이런 계명을 받은 그들은 자녀를 원리대로 가르칠 것과 규범에 따라 생활하기를 열망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교회 가르침의 어떤 것은 별나고 과격한 것으로 봅니다. 젊은 남녀는 배우자가 지닌 허용할 수 없는 방종이나 습관을 잠시 동안은 참아낼 수 있을지 모르나, 교회 밖에서 결혼한 말일 성도도 남녀들에게는 조금더 복잡한 문제로 발전할 것이고, 아이들이 생기면 더욱 치명적인 것으로 악화할 것을 예기해야만 합니다. 진실한 말일 성도라면 그의 자녀가 교회밖으로 나가거나, 축복을 회생하고, 다른 신앙안에서 키우기를 바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 위에, 보통 서로 다른 종교의 배우자는 우

리 교회내에서 자녀들을 키우려 하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일로 부터 시작되어 나아가서는 성실성의 갈등이 생기고 결국 서로 떨어지는 방법까지 대두되게 됩니다. 다시 말하거니와 진실한 종교는 근본적인 것이며, 말일 성도뿐만 아니라, 다른 신앙을 가진 남, 녀들도 그들 자신의 교회의 회원들과 결혼하여 평화와 행복을 이루도록 지혜를 써야 합니다.

물론, 말일 성도 회원들이 교회내에서 결혼해야 한다면 부수적인 자극 요인도 있는데, 그것은 즉, 교회내에서 훌륭한 회원들만이 신전에서 결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전 결혼이란 시간적으로 영원한 것이며, 신전에서 결혼한 부모에게 태어난 자녀들은 영원히 부모에게 속하게 됩니다. 젊은 남, 녀는 그들이 교회밖에서 결혼하기에 앞서 그들이 청춘의 들뜬 기분을 극복하고 버리기 보다는 오히려 이 세상이나 저 세상 혹은 양쪽 세상에서 그들의 자녀를 잃어도 좋을만한 각오가 되어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밖에서 즉, 신전밖에서 결혼한 사람들은, 일반 결혼식에서 “백년 해로하라”는 쓸쓸한 말로 끝맺는 주례사에 동의하여 필경은 이별의 순간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모든 단계에서와 마찬가지로, 교회내에서도 적령기의 젊은 남, 녀들이 있기 마련이고, 그들은 최선의 가능한 것을 생각하고, 어떤 면에서는 불가피한 교회밖에서의 결혼의 결과를 신중히 검

토해 보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그 자녀를 다른 신앙 안에서 키우거나, 자녀가 교우 관계를 수립하거나, 또는 부모의 어렸을 적 경험이나 깊은 확신에 반대되는 규범이나 가치관을 받아들이는 것을 들보는 데 있어서의 문제점을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문제에서 부모나, 후에는 자녀들 까지도 의견이 서로 어긋나게 되며 따뜻한 가족 관계를 누릴 수 없게 됩니다. 더우기, 이런 상황에서 자라난 자녀들은, 그들이 막상 배우자를 찾게 될 때가 되면 종교의 중요성을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경향이 있게 됩니다.

생각 깊은 젊은이들은, 그들이 이성 교제를 시작하기 전에, 위험한 함정을 피해서,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만 데이트를 할 것입니다. 경험 많은 변호사들은 종교적인 차이란 불화와 불행의 근본 원인의 하나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젊은이들은 결혼한 후에 그들을 교회로 개종시키고 가입시킬 수 있으리라는 희망에서 비회원과 결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이런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매우 현명한 일이며, 만일 이쪽이나 저쪽이 그 약혼자가 속한 교회에 들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약혼을 파기하는 것이 결혼한 후에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가정을 파괴하게 되는 것보다 낫습니다. 결혼에 대해서 생각하는 젊

은 남·녀들은 평화롭고, 사랑이 가득한 가정을 이루어, 행복을 누리고, 가족을 단합할 수 있음을 희망에 차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그들이 어떤 현명한 결혼 상담자나, 그들의 교회 지도자나, 구혼한 배우자의 상관에게 물어 본다면, 그들은 거의 똑같이 자기 자신과 같은 신앙과 정신적 배경을 지닌 배우자를 선택하려고 충고할 것입니다.

이런 근본적인 차이로 시작된 이 모험에는 그에 맞는 여러가지 위험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아주 현명하시고 덕망이 높으셨던 역대 대관장 중에 한분인 고 죠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께서는 교회 일반 총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의 자매들이 복음에 대한 믿음으로 가득찬 교회의 회원과 결혼하거나 혹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결혼하거나 별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 중의 몇몇은 교회밖에서 결혼한 사람도 있으나, 그들중에 그 종말을 비극으로 끝내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나는 말일 성도 여성들은 말일 성도 남성들과 결혼하고, 감리교인들은 감리교인들끼리, 천주교인은 천주교인들끼리, 장로교인은 장로교인들끼리 혹은 그와 같은 테두리 안에서 결혼했으면 합니다. 그들의 신앙과 교회의 한 울에서 그들 자신을 지키고 서로 결혼하도록 하여, 말

일성도는 교회안에서 같은 일을 하도록 합시다.” (1909년 10월 대회 기록 5, 6페이지)

우리는 이혼이란 파정에 접어든 사람들로 부터 많은 편지를 받았는데, 이런 결과를 초래한 직접적인 요인은 그들이 이상의 권고를 무시해 왔던데에 있었다고 봅니다. 다음에 그 전형적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장로님.”

“오늘 제가 장로님의 말씀을 들은 것은, 제 마음 속에 늘 깊이 새겨 있는 십년 전에 제가 들은 것과 비슷한 충고의 말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스물두살에 나는 물론이 아닌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나는 훌륭한 물몬 청년들과 데이트 했었고, 제가 그들을 존경하기도 했었으나, 그들은 제마음을 온통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제 아이를 돌볼 시기가 닥쳐 왔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주일날 사냥이나 방문으로 시간을 보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제 아이를 교회에 데리고 가야 했습니다. 제 남편은 제가 그들을 데리고 가는데 기꺼이 찬성했지만, 그러나 저는 혼자서 가야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에게 가장 큰 기쁨을 가져다 줄 한가지 일, 가족 예배에서 서로 분리되었습니다.

“저는 제 결혼 생활이 서서히 저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상호간의 관심사는 서로 달랐습니다. 남편은 개와 운동을 좋아하고, 나는 교회와 아이들

한데 흥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서 구애하고 필요로 한 시기에는 아무 공통점이 없었습니다. 함께 기도할 수 없는 부부란 서로에게 할 말이 거의 없는 법입니다. 오늘날 제가 느끼고 있는 외로움은 거의 참을 수 없을 지경입니다. 그 모든 일 중에서도 가장 좋지 않은 것은 어린 아이와 교회에 충실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남편의 시중을 들지 않으면 안되는 데서 생기는 마음의 갈등에 있었습니다. 저는 장로님께서 이 중요한 사실을 우리 청년들에게 계속 강조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문제는 우리 청년 남·녀에게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보호하셔서,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시옵고, 제가 저지른 이 큰 실수를 잘 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교회라고 홀륭하고, 성실하고, 헌신적인 사람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과 결혼하지 못하게 막는 이유는, 어떤 “우월한” 감정에서가 아니라, 경험이 말해 주고 있는 바와 같이 거의 불가피한 불상사를 양 당사자가 미리 막아 보자는 바람에서입니다. 우리는 또한 같은 이유로 해서 천주교인이나, 신교나 유대교인에게로 말일 성도와 결혼하지 말라고 충고하겠습니다. 말일 성도들에게는 결혼이라는 것의 인생을 살아 나가는데 가장 진지하고 중요할 뿐만 아니라, 합당한 의식을 받게 되면, 하늘 왕국에 들어가는 입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위에, 그것은 해의 영광의 가장 높은 자리에 들어 가는데 필수 불가결의 것입니다. 신전 결혼 이외의 것은 아무 것에도 만족하지 마십시오.

지도자 대회 개최

한국선교부에서는 지도자의 자질 향상과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지도자 대회를 아래와 같이 갖사오니 참석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대상 : 선교부, 지방부 역원 및 지부장단

분과종류 : 출판, 행정, 교신, 지도자 자질, 교수법, 집회, 형제애.

일시 : 1968년 3월 1일~2일

장소 : 선교본부

—한국 선교부장—

잃은 양을 찾으십시오



이 호 남

(선교부장 제 2보좌)

예수님의 제자가 된 안드레는 주님의 오신 뜻을 알자 제일 먼저 자기의 형제인 시몬 베드로에게 가서 그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훗날 주님께서서는 베드로를 首弟子로 삼으셨고 베드로 자신도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이러한 위대한 신앙의 소유자가 된 베드로도 자기 스스로 주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안드레에 의하여 진리를 알고 빛을 찾았던 것은 우리들의 會員倍加運動에 큰 參考가 될 것입니다.

안드레야 말로 어둠속에서 주님의 眞理를 갈구하고 있는 他人을 주님의 빛으로 인도한 좋은 例인 것입니다. 萬一 안드레가 아니었던들 시몬 베드로가 그렇게 偉大한 주님의 弟子가 될 수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서는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기 위하여 99마리의 양을 두고 가라는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不幸하고 不安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個人的인 關心을 갖는 態度가 얼마나 重要한가를 強調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나의 양을 먹이라” 하신 뜻은 하나 하나 보살피 必要的 것을 가르치고 영의 양식을 먹이라는 것이었습니다.

各支部 會員은 지금도 어디서 길을 잃고 절망의 狀態에 있을 羊들인 우리의 兄弟姊妹들을 찾기에 努力 하되 來日까지 기다리지 말고 오늘 이 순간부터 眞理의 등불을 들고 出發해야 할 것입니다.

하루의 수고로도 찾지 못하면 세번 네번, 열번이라도 되풀이 하여 決코 주님의 집으로 인도하며, 그 옛날 즐겨 부르던 “성도들이 두려울것 없다.”를 함께 부르는 가운데 주님에게 榮光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로마에 건립된 世紀의 베드로 聖堂 다음으로 有名한 미란 성당을 完成하여 헌납식을 갖던 그날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서 있던 아주 어린 少女가 가냘픈 손으로 그 웅장한 건물을 가르키며 “내가 저것을 짓는데 도왔어요”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가까이 있던 사람이 “무엇이라고! 네가 무엇을 도왔단 말이냐”하며 묻자 “저희 아버지께서 저 높은 꼭대기에서 일 하실 때 내가 음식을 날라 드렸어요”하며 대답했습니다.

이 어린 少女는 자기 나름의 큰 도움을 보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능력과 신앙이 보잘것 없는 것으로 보일지 모르나 그 違大한 設計者이신 하나님의 뜻과 計劃을 實成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하며 努力할 때에 참으로 意義있고 가치있는 생애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 佛敎의 개척자가 될 우리들도 自己의 能力과 知識에 따라 기둥의 역할 또는 흙과 모래의 역할을 할 수있는 努力을 하도록 합시다.



물 문 경 에 서 얻 은 느 낱

이 중 한

<부산지부회원>

물문경을 한번 읽어본 사람은 누구나 異常한 느낌에 젖어지며 特別한 感銘을 받을줄로 안다. 윌타드 리차드 博士는 물문경을 몇 페이지 읽어보고 이것은 하나님이 쓴 것이 아니면 마귀가 쓴 것일 것이라고 하었다고 한다. 그 어느 점에서 그렇게 느꼈는지는 모르겠으나 느낌이 絶頂에 達한 것이라고 하겠다. 筆者가 물문경을 읽으면서 느낀 驚異의인 것, 特別한 感銘받은 것을 적어보기로 한다.

1. 感銘깊은 것

무엇보다도 물문경에 나타난 各 豫言者들의 豫言의 性格이다. 물문경은 요셉의 後孫이 美大陸에 移住한 宗教史的인 記錄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證據한 豫言이 많이 실려 있다. 여러 豫言者들의 豫言은 舊約聖書에서 보는 것과는 判異하다. 舊約聖書에서 보는 예수 그리스도에 對한 豫言은 그것이 豫言임을 指摘하여 주는 이가 없이 혼자 읽기만 해서는 알기가 어려운 것이다. 즉 暗示에 그치고 直接的으로 알기 쉽게 말한 것이 적다. 그러나 물

문경에 나타난 數 많은 豫言者들의 豫言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바로 내세우고 現在 보는 것과 같이 또는 歷史를 記錄한 것과 같이 적혀있다. 즉 예수님의 誕生과 그의 가르침과 奇事異蹟다. 猶太人의 迫害와 十字架의 犧牲과 復活等에 對하여 事實 그 대로를 體系있고 分明하게 記錄하고 있다. 벤자민王 같은 이는 모사이야서 3장 7절에서 예수님의 全身의 털구멍에서 피가 흘러내린다는 것까지 말하고 있다. 이것은 新約聖書 누가복음 22장 44절이 解釋하기 어려운 聖句라 하여 問題視된 것을 잘 解決해 주고 있다.

7. 理論의 淨奧한 點

하나님께서 왜 惡을 容納하셨나 하는 것은 一般的으로 큰 疑問에 하나였으나 니파이 2서 2장 11절부터 13절에서 事物은 反對되는 것이 없이는 成立될 수 없다는 것으로 이를 잘 說明해 주고 있다. 니파이 2서 2장 21절부터 25절과 로마서 12장 24절, 42장 4절부터 13절에는 現世의 人生은 試驗期에 屬한다 하여 人間이 이 世上에 온

目的과 하나님의 計劃을 說明했고 하나님께서 아담이 生命果를 먹지 못하도록 嚴重히 團束하신 (創世紀 3:24) 理由를 아울러 알 수 있다. (로마서 12:21~26, 42:2~5)

또 니파이 2서 10장3~5절에는 예수가 특히 유대땅에서 誕生하신 理由를 說明하였고 모사이야서 13장 29절부터 30절에는 모세의 律法이 주어진 根本的인 目的을 잘 理解시켜 주고 있다.

이러한 眞理는 물론경을 읽음으로써 비로소 알 수 있고 聖書에는 찾아 볼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 외에 墮落, 救贖, 信仰, 悔改, 浸禮, 復活 等에 對하여 야곱서 4장, 니파이2서 2장, 9장, 10장, 25장, 31장, 모사이야서15장, 16장, 로마서5장, 9장, 11장, 12장, 34장, 40장, 42장, 힐라멘서 14장 等에서 深奧하고 卓越하고 徹底한 理論을 나타내고 있는것은 참으로 驚異的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나. 事實에 놀라운 것

예수님의 十字架 殞命때에 天地異變에 關하여는 當時 유대 나라에서 일어난 일에 對하여 마태福音 27 장 51 절부터 53절, 마가福音 15장 38절, 누가福音 23장 44절에 言及되어있으나, 니파이3서 8장5절부터 23절, 9장 3절부터 10절의 記錄된 異變에 比하면 아무 것도 아니다. 이에 說明할 것도 없이 該當聖句를 읽어보면 누구나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니파이인의 예수님의 12弟子中 세 사람까지 不死의 몸으로 있다는 것이

다. 또 그들 세사람은 하늘에 올라가 보았다 한다. (니파이 3서 28장 13절) 이러한 事實과 니파이 3서 28장 20절에서 보는 異蹟은 다른 經典中에 分類例를 찾아 볼 수 없을 것이다.

다음은 地動說이다. 地動說은 七世紀以後 獨逸의 코페르니쿠스와 伊太利의 갈리레오에 依해 唱道된 바 있고 聖書에는 욥기 26장 7절에 地球說을 말하고 있다하나 明白하지 아니하다. 힐라멘서 12장 15절에서 움직이는 것은 “太陽이 아니고 地球라”고 分明하게 말하고 있다.

筆者는 이러한 모든 事實을 末日聖徒 聖典에 나타난 末日에 이루어질 豫言 즉 니파이 3서 20장 22절, 이더서 13장 8절, 교리와 성약 133장 30절부터 34절 等を 아울러 생각해 볼 때 요셉의 後孫과 하나님과의 關係는 이스라엘 모든 支派보다 몇 곱이나 크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닐까 한다.

2. 感銘깊은 것

모세는 죽지않았다는 것이다. 舊約 聖書 신명기 34장 5절, 6절에 모세가 죽었으나 그 무덤을 아는 이가 없다고 하였다. 로마서 45장 19절에는 當時 사람들의 聖文에 依하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레려가셨다고 한다. 이 聖文이라함은 레반의 木石판으로 생각되는데 모세가 죽었다는 신명기의 記錄은 誤記 或은 誤譯으로 생각된다. 이를 立證하는 하나는 마태복음 17장

2절에 모세와 엘리야가 變形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 하였다고 記錄되어 있다. 엘리야는 죽지 않았으나 變形된 것이 틀림없고 모세도 그때까지는 사람이 復活한 事實이 없으니 산 몸으로 變形된 것이 틀림없을 것이다.

또 하나는 멜기세덱은 父母가 있었다는 것이다. 新約聖書 히브리서 7장 3절에 依하면 멜기세덱은 父母가 없었다고 記錄되어 있다. 그러나 로마서 13장 18절에는 멜기세덱은 그 아비를 代身하여 나라를 다스렸다고 記錄되어 있어 교리와 성약 84장 14절에 보든바 멜기세덱은 그 아비의 系統에 依해서 神權을 받았다는 말을 아울러 생각할 때 그 父母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新約聖書 갈라디아서 3장 19절,

에베소서 2장 15절, 히브리서 7장 18절, 19절, 10장 1절에서 모세 律法은 廢止되었다고 認定할 수 있으나 文句上으로 分明치는 못하다. 只今까지도 모세 律法을 固執하는 敎派도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몰몬경에는 니파이 2서 25장 24절, 27절, 모사이아서 13장 27절, 로마서 34장 13절부터 14절, 니파이 3서 15장 4절부터 5절, 12장 18절부터 19절, 9장 17절, 니파이에서 4장 12절에 모세 律法은 예수의 十字架로서 目的을 達했기 때문에 廢止되었다고 分明한 文句로써 記錄되었음을 볼 수 있다.

以上에 列擧한 모든 事實은 몰몬경의 眞價를 如實히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몰몬경을 읽으면서 느낀다.

광 고

1968년도 제 1 차 지방대회를 다음과 같이 갖겠아오니 부디 오셔서 여러분께서 믿고 있는 교회를 소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남부지방대회는 남부지방부를 탄생시키는 중요한 행사가 있게되며, 서울지방부는 김블 사도님의 말씀을 듣는 기회가 되오니 기회를 잃지 말아 주십시오.

일시 및 장소

남부 지방대회 1968년 2월 17일~18일 부산지부

서울 지방대회 1968년 2월 24일~25일 동부지부

— 한국 선교부장 —

<교리문답>

엘마서 11장 43절에 보면 「영과 육체는 원래의 완전한 모양으로 다시 결합될 것이요, 수족과 뼈의 마디가 모두 지금 우리의 모양 그대로 회복될 것이라」고 했는데 꼽추나 앓은병이에 상관없이 원래의 완전한 모양으로 회복된다고 하면 「우리의 모양 그대로」란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리고 사산아와 유산아는 자기의 잘, 잘못을 분별할 수 있게 자란 나이로 부활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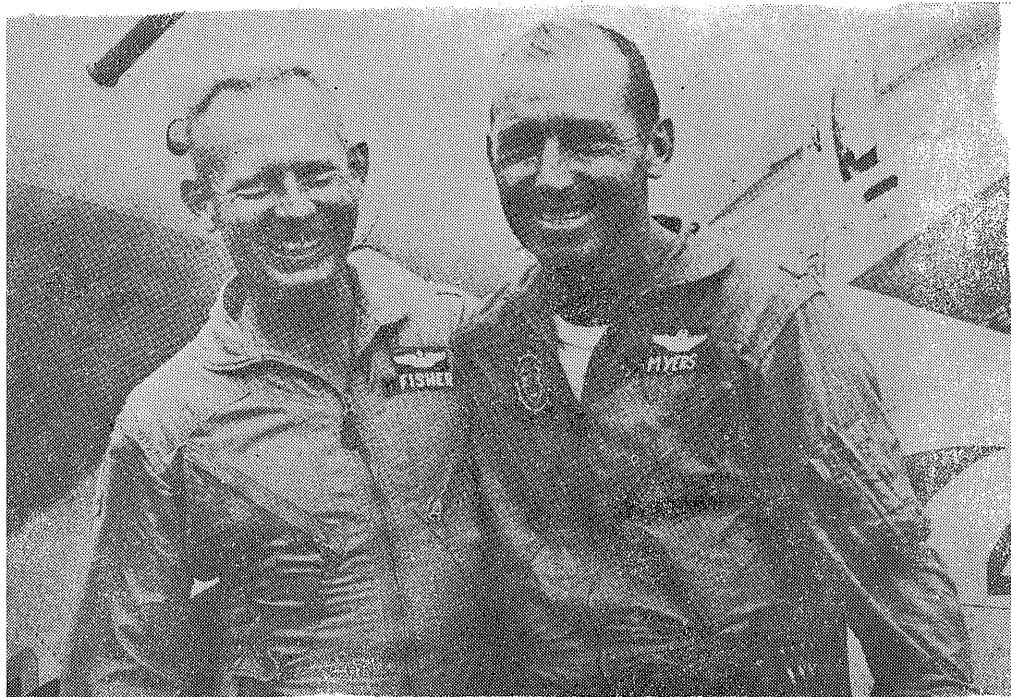
서부지부 김 석 중

답 : 엘마서 11장 43절과, 45절에 보면 인간의 부활에 관한 부분적인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들은 죽음으로부터 부활한 다음에도 지상에 살고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영과 육체가 완전하게 되어 그 육체 속에 깃든 아름답고 완전한 성령의 모양대로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만일 사람이 기형아로, 장님으로, 손발이 없이 뚱뚱하거나, 말랐거나, 체내 조직이 결여된 상태로 낳은 것에 상관없이 모두 고쳐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인간이 거룩하게 되며 영광스럽게 되는 과정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지어주신 기본적인 요소중 원소 하나라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새롭고 영원한 상태의 인간으로 변형할 때에 이들 원소는 다시 모여 하나를 이루게 됩니다.

사산된 아기거나 유산된 아이는 물론 부활하지 못합니다. 살아있는 육체의 영혼만이 죽어 부활하게 됩니다. 인간의 영혼은 영과 육체로 구성된 것입니다. 육체와 영으로 태어난 자만이 부활하게 됩니다.

<선교부장>



〈사진 : 피셔 소령과 마이어스 중령. 캄보디아 근처의 가설 활주로에서 그를 구했다.〉

死亡의 골짜기로

린든 비·존슨 대통령은 1967년 1월 19일 폭설이 내리는 데도 불구하고 백악관 실내에서 특별 시상식을 갖기로 했다. 이날 원래 계획된 대로 남쪽 뜰 잔디밭에서 시상식을 갖는 것은 취소되었지만 수상자는 언짢아 하거나 그렇다고 흥분하지도 않았다.

그는 이미 환경과 조건과 계획의 변화에 면역이 생긴 사람이다. 그는 그날 그의 신축성 있는 기지와 재능과 또 그가 바친 용기로 인하여 백악관

에서 상을 받게 된 것이다.

그는 미공군의 일등 조종사로 미국 정부가 그 공적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영웅에게 하사하는 최대의 훈장을 받기 직전에 있는 것이다. 대통령이 그의 목에 푸른 리본을 걸어 줌으로써 마침내 그는 미 공군으로(항공국을 포함) 훈장을 받는 마흔 여덟번째 영웅이 된 것이다. 또한 그는 공군이 단일 군으로 독립된 이래 다섯 번째로 이 훈장을 받은 것이며 이 훈장을 받

은 유일의 생존 인물이 되었다. 이 훈장을 받은 네명의 조종사는 모두 한국 동란 때 받았으나, 사실 훈장을 받을 공을 세워놓고는 모두 죽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피셔 소령은 월남전에서 이 훈장을 받게된 최초의 인물이기도 한 것이다.

그때의 모든 상황과 조건과 경위로 보아 피셔 소령도 사실 그 훈장을 받게 된 공로를 세우면서 죽지않을 수 없던 거였다. 그러나 정설과 상장과 조건과 경위의 역설은 때로 전장이라는 현장에서 시체가 아닌 영웅을 분만하기도 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1966년 3월 10일 죽음을 웃어 넘긴 피셔 소령의 엄청난 무용담인 것이다.

시상식에서 해롤드 브라운 공군 참모총장이 읽은 의례적인 공로 상장의 글을 들으면서 레포드 웨인 마이어스 중령은 버니 피셔 소령의 실같이 잔잔한 미소를 결 눈길 해 보았다.

“.....뛰어난 의협심과 목숨을 건 용맹심을 발휘한 A-1E의 조종사는 자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월남 공화국 아사우 근처에서...”
 “저 자주 동료들에 의해 “썸프”라는 별명으로 불리지는 마이어스중령이 입을

열었다.

“정말 그는 의협심이 강하고 담대할 뿐만아니라 그 위에 목숨까지 내걸고 덤벼 들었던 것이었습니다”

만일 마이어스 중령이 모른다면 알 사람이 없다. 마이어스 중령이란 그날 바로 피셔 소령이 구출해낸 사람이다. 장소는 조용한 백악관 회의실이였지만, 썸프 마이어스 중령은 일년이 지난 그때의 모습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충분히 머리속에 그려 넣을 수 있도록 어렵지 않게 설명했다.

총알이 튀는 골짜기로 베트남 2,000여명이 몰려들어 공군 특별 전초지를 휩쓸었다. 숨막히는 더위가 골짜기를 지지 누르고 있었으니, 그 골짜기는 폭이 반 키로메타 남짓하고 길이가 이

사진 : 미국 군인의 최고 영예인 상이 린든 비·존슨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주어진 후의 기념촬영, 아이다호주 남 스테이크 회원인 그의 훈장 수여식에는 피셔 자매와 다섯 아들도 같이 초청되었다.



십오리 켜지는 것이었는데 베트콩 선 발대가 이미 계곡 양옆으로 와서 20여문의 대공화기를 설치해 놓았다. 원자 무기 수백대라도 이 보다 더 무서우라! 특히 이날은 8,000 피트 두께의 구름층을 뚫고 하강해야 했으며 지상에서부터 구름까지의 높이는 최고 800 피트에서 200 피트까지 되는 곳도 있었다. 측면에서 공격하기엔 너무 좁고 이 계곡을 침공하기 위해서는 비행하다가 급한 좌회전을 시도한 다음 이미 베트콩이 점거한 남쪽 방벽을 때려야 했다. 그러니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180°각의 급회전을 수없이 되풀이해야 했던 거다.

마이어스 중령은 그의 편대 조종사 허버트 킹 대위와의 작업을 회상해 낸다. 이들은 구름위를 선회하면서 틈을 엿보았으며 아래로 뚫린 틈만 있으면 A-1E기를 몰고 내려가 요새에 남은 병력을 조력하려 했다. 존 루카스 대위와 그의 편대 조종사 대니스 해그 대위도 함께 했었다. 이때 이들은 피셔 소령과 그의 편대 조종사 프란시스 바스케스 대위의 비행기가 폴레이쿠로부터 날아오는 것을 보았다.

아무도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모른다. 그러나 일행은 바스케스 대위가 인도하는 구멍을 통하여 사망의 골짜기로 강하해 내려가서 폭격을 유도하는 야군의 무전을 잡고자 나무 높이로 저공 비행을 했다. 이들은 남쪽 요새 벽을 겨누어 강타했으며 전

날엔 베트콩 300여명을 가시 철조망으로 날려 버렸다.

루카스와 해그는 북쪽에 남아 지원했고 피셔소령이 첫번째로 급강하하는 뒤를 마이어스 중령과 킹이 뒤따랐다. 이들이 골짜기로 강하하자 베트콩의 대공 포화는 일제히 문을 열었다. 킹의 기체를 덮은 창문이 포화에 맞았으나 사람은 기적적으로 이를 피했다. 그러나 일단 창문이 파괴된 그의 비행기는 그런 상태로는 구름속을 비행할 수 없어 일단 강제로 본부 기지까지 송환되었다. 피셔 소령과 마이어스 중령은 남쪽 요새 벽을 몇 번이고 되풀이 하면서 강타했다. 이때 돌연 공격을 시도하던 켄프 마이어스는 기체의 진동을 느꼈다.

“내 기체에 캘리바 50 탄을 맞은 일이 있는데 이것은 그것 보다도 더 큰 중공제 37밀리 포 같음”이라고 의쳤다.

“곧 이어서 엔진이 이상해 졌고 바로 완전히 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기체내부는 온통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나는 무전기를 틀어 나의 호출번호를 밝히고, Surf 41 번기, “적탄에 심하게 맞았음”이라고 전하자 바로 뒤에 따라오던 피셔소령이 “기체 뒤 꼬리에 불이 붙었음”라고 전했습니다. 나는 고도가 낮아서 탈출을 시도하지 못했고 결국 불시착 하겠다고 피셔 소령에게 전했습니다.”

“전쟁이 치열한 중에도 피셔 소령은

포화에 맞아 불시착한 동료에 대한 전우애를 어찌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마이어스의 등을 두드리면서 이야기 하는 공군 참모총장의 음성이었다. 순간 마이어스는 현실로 돌아왔고 피셔 소령은 대통령의 면전에서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도 우주주에서는 다시는 있을 수 없는 감흥에 취해 있었다.

피셔 소령은 마이어스 중령이 외친 ‘불시착 함’이라고 한 소리를 너무나 잘 기억하고 있었다.

쩨프 마이어스는 불과 200 피트 상공에서 포화에 맞았다. 그위에 중장비를 갖춘 그는 겨우 회전으로 균형을 잡았을 뿐, 더구나 화염과 연기에 싸인 그는 전방을 내다 볼 수 없었다. 이를 포착한 피셔는 마이어스와 함께 착륙 계획에 동조하여 실제로 착륙지를 검사하면서 마이어스가 기체를 내리려 하자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일러 줬다.

“기수를 위로!”

피셔의 외침에 마이어스는 어김없이 움직여 주었고 그리하여 A-1E는 배를 땅에 붙이게 되었다.

“그는 동체에 붙은 연료 탱크를 제거하려 했지만 결국 그러지 못해서 기체가 땅에 닿자마자 붙어났다.” 고 피셔는 후에 설명했다.

“커다란 불기둥이 솟았고 불길은 기체가 헤치고 들어간 방향으로 통로를 내 주었다. 그는 얼마를 그대로 끌려 가다가 결국은 오른편 비상구로 탈출 했지만, 불길이 곧 그

뒤를 쫓았고 기체는 마침내 완전히 불꽃속에 휘말렸습니다. 나는 그가 곧 뛰려니 생각했지만— 상식으로 그렇게 한다—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가 270°의 우회를 한 시간으로 보아 한 40초 가량이 걸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시간이 무서울 만큼 길다고 느꼈었습니다.”

피셔는 곧 공군 사령부를 불러 마이어스의 불시착을 보고했다. 그리고 그는 마이어스가 불길 속에서 뛰어나오지 않았다는 것과 어찌면 부상을 입었을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마이어스는 자기대로 무기, 낙하산, 헬멧 등을 던져 버리고 탈출을 위해 구조기아도 제거 했으며 그러다가 마침내 탈출에 완전히 성공했다.)

“나는 계속해서 상공을 선회했고 마침내 찢프 마이어스가 기체 우편으로 해서 뛰어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흡사 마이어스 자신이 하고 있는 것 처럼 보였는데 그건 아마 짝찬 연기 속에서 버티고 있느라고 연기가 몸에 베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마이어스는 곧 통로 옆으로 뛰어났습니다.”

피셔는 마이어스가 뛰어간 근처에 낮으막한 뚝이 있는 것을 보았으며 마이어스가 그 뚝 근처 숲에 숨는 것을 보았다. 적은 바로 그 너머에 있었다. 피셔가 마이어스위로 강하하자 그는 손을 흔들어 보였다. 결국 피셔는 그

의 생존을 확인하기는 했으나 부상을
 일만큼 입었는지는 알길이 없었다. 피
 셔는 이를 본대에 알리고 구조 헬리
 콥터가 언제쯤 도착하겠느냐고 했다
 니 벌써 출발했다고 답하는 거였다.
 피셔는 구조대의 도착시간을 약 20분
 으로 잡았다. 이때 루카스와 헤그가
 다시 지원해 왔다. 이들은 마이어스
 근처로 적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엄호
 하면서 계속 요새를 화염으로 뒤덮었
 다.

약 10분쯤 후에 피셔는
 다시 본대를 불러 구조대의
 행방을 물어보니 피셔가 예
 상한 시간에 당도록 이미 출
 발했다는 거다. 본대는 다
 시 피셔에게 그가 뚫고 들
 어온 구름 구멍을 찾아 올
 라가서 구조대를 에스콧하
 라는 명령을 내렸다.

“나는 절대로 그러한 방
 법으로 마이어스를 구출
 하지 못하리라는 걸 알
 았습니다. 마이어스 주변
 으로는 베프콩이 득실거
 렸고 만일 내가 자리를 뜨
 기만 하면 곧 그에게로 덮
 칠 기세였습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피셔
 는 자기가 직접 내려가 마
 이어스를 구출해 내겠다고
 본대에 연락한거다.

“본대에서는 이를 저지하
 려했고 나 스스로도 현명

하지 못한 계획임은 알았습니다. 물
 론 이러한 나의 계획이 그리 탐탁한
 것은 아니었지만 어쩔수 없는 상황
 이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기를 갈
 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내
 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
 은 불시착한 그가 나의 동포요, 함
 계 목숨을건 戰友였음을 어쩔니까?
 나는 본대에 나의 着陸計劃을 알
 리고 곧 着陸을 시도했습니다. 바스

<사진 : 범 신앙잡지 Guideposts 미국판 1967년 9월호
 표지에 실린 피셔 형제>



케스 대위가 바로 뒤에서 기총소사를 퍼부었습니다. 나의 속도는 착륙하기엔 너무 빨랐습니다. 그 위에다 파괴된 활주로 언저리에 덮힌 연기는 정말 지척을 분간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연막뒤에까지 몰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만 속도계를 밟은 시간이 좀 길어서 활주로 끝에 정지하기엔 너무 멀리 지나쳤습니다.

생각컨데 연기가 피셔에게 큰 장애가 되었던 것 같다. 더구나 베트콩들이 뒤엎어 놓은 활주로의 철판은 여기 저기 튀어나와서 비행기의 바퀴를 찢기에 안성 맞춤이었다.

“정말이지 그곳은 수라장이었습니다.” 피셔는 말을 이었다.

“속소가 파괴될때 날라온 파편이랑 바켓스등, 그리고 휘발유 드럼과 불발된 18인치 로켓탄, 어쨌든 나는 이런 것들을 스치면서 내달았습니다. 결국 활주로 밖으로 밀려 나갈 수 밖에 없다고 간파한 나는 다시 엔진을 걸어 이륙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피셔는 180°로 꺾어 돌아와 이번에는 반대편에서 착륙을 감행했다.

“나는 되돌아와 활주로 거의 끝에서 착륙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활주로의 길이는 불과 2,500피트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나의 비행기가 가진 최대의 성능을 구사하며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나는 이때

만큼 놀라거나 겁을 낸적이 없었습니다. 비행기가 도저히 멈춰질 것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또다시 브레이크 단추를 세차게 누르면서 밀날개를 최하각으로 웅크렸습니다. 어쩔 파괴된 활주로는 도움이 된건지도 모릅니다. 결국 비행기는 활주로를 조금 벗어난 곳 까지 밀려가서 섰습니다. 활주로 끝 부분에 있었던 휘발유 드럼을 쳤을 법도 한데 내가 돌아섰을 때 꼬리로 슬쩍 스쳤을 뿐 비행기 날개는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음 피셔는 전체 활주로의 약 2/3를 그대로 달리면서 마이어스를 찾았다.

“저는 그가 있는 곳을 알았습니다. 더구나 그는 비행기의 저를 보자 두 팔을 힘있게 휘둘러 보였던 것입니다. 저는 근처에 가서 급정거를 시도했으나 어쩌나 속도가 빨랐던지 한 100피트나 미끄러진 다음에야 기체는 멈추었습니다. 저는 잠시 기다려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제가 확인했던, 바로 그 자리에 있어야 했을 그는 없었습니다. 필경 짐작보다는 중상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을텐데, 후시나 하는 걱정이 스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빨리 비행기의 브레이크를 고정시킨 다음 꼭대기로 기어 올라가 그가 있던 자리를 뒤져 보았습니다. 저는 미리

를 통해서 날개 뒤로 기어 올라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빨간색의 두 눈동자를 보았습니다.

후에 마이어스는 기자들에게 46살의 자기로서는 일찌기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착륙했다고 말했다. 마이어스는 날개에 매달려 조종사석 밑에까지 올라와 있었다. 피셔는 그의 바지 뒤를 잡아올려 비행기 바닥에 눕혔다.

“머리 부분에 심한 상처를 입었으나 조금도 아픔을 호소 하지 않았읍니다.”

피셔의 말을 빌리면 두 조종사는 그곳에서 재빨리, 그리고 무사히 이륙할 수 있었다고 한다. 비행기가 제 속도를 내게 되자 피셔는 득의 만면하여 A-IE 라는 선명한 표식의 기체를 계곡의 위 아래로 선회하며 비행했다.

마이어스와 피셔는 구조 작전이 진행되는 동안 자기들의 작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여 준 세 조종사에 대한 이야기를 끄치지 않았다.

정확한 기총 소사와 엄호 폭격은 구조 작전을 성공으로 이끈 핵심이었다.

피셔가 의자에 달린 낙하산 조종간을 잡아다니려 했을 정도의 결정적이며 위험한 단계에 이르렀었으나, 방금 전에 포격을 받아 위험한 루카스는 헤이그와 마스크즈를 인도하여 적진을 무사히 탈출하게 하였다. 이들이 타고 있는 비행기는 모두 “원체스터”였으나 루카스가 말한대로 베트콩은 그

것을 모르고 있었다. 동료 조종사들과 피셔가 계곡을 마악 떠나자 A-IE 기 구조 편대가 오고 있었다. 그 날 오후 17명의 조종사중 살아남은 13명의 조종사는 아쇼 비행장으로부터 철수 했다. 그러나 며칠 후에 그들은 동편산봉에 있던 월맹군 1개 중대를 섬멸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우리는 베트콩이 구축한 요새의 동편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으며, 결국 그래서 우리는 살아도 망할 수 있었읍니다.”라고 살아남은 조종사 한 사람은 슬회하고 있다.

“...적의 위협을 무릅쓰고 구출 작전에 참여하여 성공적으로 이끈 피셔 소령의 영웅적인 공격 정신과, 자기를 아끼지 않는 희생적인 용기는 미국 군인으로서의 표본이 되기에 족하며 이는 곧 그 자신과 미 공군 전체의 명예를 높이기 에 충분한 것입니다.”

아이다호주 가정에서의 아버지와 아들. 자녀들은 모두 보이 스카웃이며 그의 가족은 모두 음악 애호가들이다.



사실이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미공군의 기고한 전통이란 무엇인가? 용기만으로 죽한 것인가? 아니면 ‘전우 중 한 사람’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또는 그리하여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할 수 없는 지경에 달했을 때 목숨을 초개와 같이 버릴 수 있는 정신이 필요한 것일까? 그렇다. 아니 어쩌면 그 보다 더한 어떤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인간의 미래에 희망을 약속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랴도 불사



사진 : 조종실에서 마이크를 작조하고 있는 피셔 형제. 현재 그는 서독 군 인자부의 지부단장에서 봉사하고 있다.

한다는——본래부터 핏속에 섞여 전해 내려왔거나 혹은 후에 의식적으로라도 불어넣어진 신념——아마도 국가가 표상하는 바 신념이 작용했을 것이다.

1월 19일 백악관에는 실로 많은 사람이 참석했다. 버니 피셔 소령이 훈

장을 받는 다는 데에 공군 용사들은 조금도 놀람을 표시하지 않았다. 이는 그가 1953년 플로리다주 턴달 공군기지에서 Day Fighter School을 졸업한 이래 초음속 제트 비행조종을 하였던 방공 사령부에 근무하게 될 때까지 미공군에서 보낸 생애의 총결산이기도 했다.

플로리다주 홈스테드 공군기지에서 제 319 방공 전투 중대 중대장으로 근무하던 버니 피셔가 월남 군무를 지원한 것은 1965년의 일이었다.

제 319 비행대의 A 중대장으로 일하면서 그는 많은 훈장을 받았다. 그곳에 근무하면서 엔진 연료 계통에 고장을 일으킨 F 104 전투기와 함께 두번이나 무사히 착륙한 기록을 세웠다. F 104 전투기의 경우에서 엔진 연료 계통의 고장은 조종사 탈출이 불가피한 통례였는데, 이는 고장이 난 후로 4,5분 밖에는 더 비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피셔는 이 첫번째 사고를 무사히 넘긴 공로로 공군 참모부에서 수여하는 훈장을 수여받았다. 두번째 사고를 방지한 것으로 계속하여 공군 본부에서 수여하는 훈장을 받았다.

그 후로 피셔는 방공 사령부에서의 다난했던 12개월의 근무로 바쁘다. 다난하다고? 그렇다.

1965년 7월부터 1966년 6월까지 A-IE 편대를 이끌고 비엔 호아, 푸 레이쿠 등 월남을 누비고 돌아다니며

<54페이지 하단으로>

물몬의 군인형제들은 기도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많은 것을 배울수 있는 나이에 혹은 후한의 본국 전선에서 혹은 무더운 타국의 싸움터에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분투하고 있는 물몬의 젊은이들은 여러분의 기도에 감사함을 전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더욱 많은 격려의 글이 있기를 바라는 그들의 신앙이 오히려 외로운 처지에 있음으로 더욱 발전 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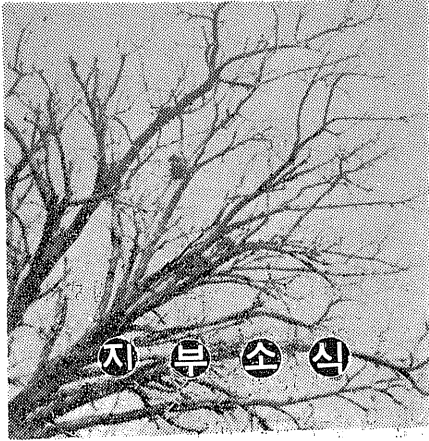
우리들의 형제에게 더욱 신앙이 북돋아질 수 있는 글을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소개하는 형제들은 성도의 벗 편집실이 매월 성도의 벗을 보내드리고 있는 분들이며 2 차에 걸쳐 확인했으나 소식이 없었던 분은 제외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지부에 침례를 받은 군인 형제가 계시면 지부장이나, 성도의 벗 책임자를 통해서 보내주십시오.

지부별	계급	성명	소속부대
동부	일병	전종렬	부산시 동구 범일동 미 제 142 병참대대
"	일병	이희권	군우 155-114 제 505 수운단 인사 행정과
동대문	상병	이종대	경기도 의정부 미 제 1 군단 제 25 관측대대
"	병장	한익상	군우 151-501 주월 한국군 야전 사령부 군사정보부대
"	일병	김국성	군우 156 제 1203 건설공병단 제 213 대대 제 1 중대 제 1 소대
삼청	대위	한무웅	경북 영천 정보학교 교수부
"	소위	허완	군우 155-502 제 2 예방 의무중대
"	하사	유춘재	군우 151-501 주월 한국군 사령부 방첩대

" 병장 홍 숙 호 서울 중구 필동 합동 참모부 작전국 교육과
 " 상병 이 계 진 군우 153-119 제 3군관구 사령부 제 3지구
 인쇄소
 " 상병 오 인 용 군우 151-501 주월 한국군 사령부 인사처
 " 상병 최 산 태 군우 156 제 111 통신직접지원중대
 " 일병 진 순 군우 151-103 제 8562부대 인사과
 " 일병 서 희 철 군우 153-연무대 제 2 훈련소 작전참모처
 청 운 상병 황 인 성 군우 157 제 1205 건공단 본부중대
 서 부 대위 김 경 수 군우 155-114 제 18 병참대대 10 치수반
 " 중위 이 용 호 원주 야전 비행기 학교 교수부
 " 소위 최 장 렷 군우 155-108 제 5788 부대 제 2 대대
 " 일병 오 광 근 군우 155-101 제 513 부대 B 포대
 " 일병 최 수 영 군우 151-91 제 9832 부대 제 1 포대
 " 일병 정 지 현 경기도 파주군 천현면 가야리 미 제 80 포병대
 대 본부중대
 " 상병 배 영 기 군우 151-501 주월십자성부대 제 6 후송병원
 S-4
 신 촌 상병 이 남 엽 군우 151-501 맹호 제 1 연대 12 중대 2 소대
 대 구 상병 김 병 지 군우 151-103 제 2839 부대 6 중대
 " 일병 박 옥 준 군우 156 군기사 운전교육대 행정과
 동 구 하사 강 숙 중 경남 창원군 상남면 상남 훈련연대 제 40 기 사
 후생 중대
 " 상병 한 민 근 군우 155-114 제 8805 부대 제 101 화학 일반
 지원중대
 " 일병 장 병 태 군우 156 육군 조병창 본부사령실
 " 일병 박 문 정 군우 156 병기기지 지원부 수집소 행정과
 전 주 상병 허 기 욱 강원도 인제군 남면 신남리 육군관사 11 급양
 대창숙소



동부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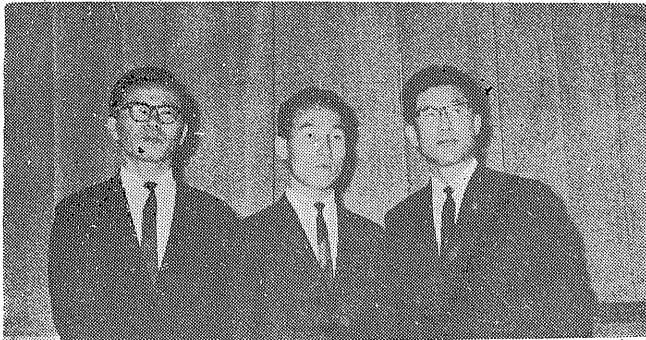
한국 말일 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산역사인 동부지부는 또다시 동대문지부를 낳았다.

1956년에 탄생된 서울지부가 그해 11월 유락동에 자리를 잡고, 1957년 늦가을 동부와 삼척지부로 나뉘던 계속 불어나는 회원들을 감당할 수 없어 동대문 지부를 탄생시켜 2부 집회를 보아왔었는데 그 후, 용두동에 현재의 동부지부 건물이 완성되므로 해

서 두 지부는 다시 동부지부라는 이름으로 함께 예배를 보아오다가 이번에 선교부 계획에 의해서 동부와 동대문지부로 나뉜 것이다.

편의상 성동구의 회원들을 동부로 동대문구를 포함한 그외 지역의 회원들을 동대문지부라 이름하고, 동대문지부에 온 시간을 양보한 동부지부는 거리가 멀어서 흩어졌던 성도들을 모으기에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지부장으로는 지방부 남자 상향회 회장으로 있으면서 청소년 대회 등의 많은 활동 모임을 이뤄놓아 계획을 실천하는 역원으로서 이름나 있는 전 종철 형제가 임명되었다.

차 중환 지방부장에 의해서 지지가 물어지던 지난 1월 14일 지부장으로 임명받은 전 종철 형제는 “지부장만이 홀로 부르는 노래를 듣는 방청자가 되지 말고 함께 노래하도록 모두가 협조하자”고 했었는데, 그는 이 낙연 형제를 제 1보좌에, 진 원선 형제를 제 2보좌에 임명하는 한편, 많은 역원의 자리에서 회원 모두가 일해줄 것을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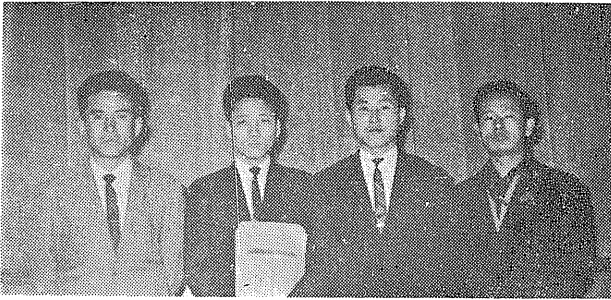
〈사진 : 좌로부터 제 1보좌 이 낙연 형제, 지부장 전 종철 형제, 제 2보좌 진 원선 형제〉

동대문지부

지난 1월 14일 동부지부에서 분가한 동대문지부는 지부장으로 남 영진 형제를 모셨다. 한국에서 아직 실시하고 있지 못한 가정복음 교육을 이뤄내기 위해 동분서주했던 남 영진 형제는 가정 복음교육 담당 평의원으로 봉사해 왔었으며, 항상 논리 정연한 말씀으로 많은 회원들에게 감명을

주곤 했었다. 그는 회원들의 지지에 감사하면서 “쓸모없는 자같은 추운 겨울날 바지를 걷지 않고 건널 수 있는 징검다리를 만드는 디딤돌이 될수있다”면서 회원들을 격려했었는데, 그는 제1보좌에 김 옹호 형제, 제2보좌에 문 시우 형제, 서기에 이 강우 형제를 각각 임명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동대문지부의 발전을 위해 많은 회원들을 만나고 있다.

〈고 천석 기〉



〈사진 : 좌로부터 제1보좌 김 옹호 형제, 지부장 남 영진 형제, 제2보좌 문 시우 형제, 지부서기 이 강우 형제〉

청운지부

청운지부에서는 지난 11월 12일 오후 7시부터 “영화의 밤”을 가졌다.

인간은 행복을 늘 추구하지만, 방향을 바로잡지 못해 무의미한 인생을 살고 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인간의 삶의 뜻과 미래에 관해서 설명한 것으로 아름다운 색채와 알기쉬운 해설은 회원뿐 아니라, 참석한 구도자들에게도 큰 감명을 주었다.

2백여명이 참석한 이날의 영화의

밤에는 한 인상 형제가 참석해서 행복의 발견을 위해 자기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가를 얘기해주어 참석한 사람들을 흐뭇하게 했으며, 영화가 끝난후에는 전도를 위한 소책자를 전해주어 많은 사람들에게 기독교에 대한 관심을 갖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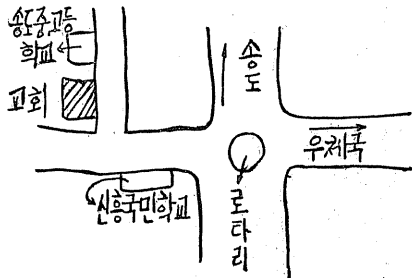
〈홍 순모 기〉

인천지역

인천시민을 위한 성탄절 모임을 주선 했었던 인천지역은 집회장소를 동

인천 앞의 허 채 형제 택으로부터 신
흥국민학교 부근으로 옮겼다.

아담과 이브 이후의 족보를 만드는
등의 열의 속에 회원 모두가 한덩어리
로 움직이고 있는 인천 지역엔 선교사
기간을 6개월 연장한 장 병훈 장로가
지역장으로 있는데 주소는 담동 37번
지 이다.



<이사한 인천 지역의 약도>

대 구 지 부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대구

지부 여자 상호향상회의 회장으로 봉
사하던 박 명자 자매가 지난 1월 21
일 대구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가졌다.
적은 키의 만능 재주꾼으로서 직장에
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선사하
는 사람으로서 불러 왔었던 그는, 식
을 끝내 놓고 회원을 밖으로 빼앗겨
야하는 대구지부 자매들과 함께 눈물
을 짓더라고. 서울로부터 팔머 자매
도 참석했었던 이날의 식에는 많은 교
회사람으로 이채로웠는데 박 자매는
군의관인 부군을 따라서 강원도로 향
발했다고 한다.

대구지부장단의 일부가 개편되었
다. 지난 1월 7일 성찬식에서 지지를
받은 지부장단의 일부는 제 2보좌에
이 덕환 형제, 지부서기에 남 국화 형
제들이며 이들은 배 리돈 지부장을
모신 가운데 2부제의 집회가 되도록
회원 배가 운동을 열심히 펴고 있다.

슬픈 마음을 같이 나누시다.

한국에 주둔하면서 고려의 홀 어머니를 모시고 있던 미국 군인 한국 지방
부장 켄슨 형제의 어머니께서 지난 1월 12일에 심장마비로 별세하심에 우
리 대구지부 회원 일동은 심심한 조의를 표합니다.

물심양면으로 대구지부를 도와 주시던 켄슨 형제와 인자하신 그의 어머니
은 늘 복음으로 쌓여진 선한 마음을 이웃에게 주는 사람으로서 따듯함을 느
끼게 해 주셨던 분이셨습니다.

고인이 주셨던 따듯함을 기억하는 우리 대구지부회원 일동은 삼가 명복을
기원합니다.

<대구지부 회원 일동>

번역실에 새 스태프

지난 12월말 동대문지부의 이 숙자 자매는 선교부 번역실의 새 식구가 되었다.

중앙 지방부 상호향상회 역원인 그녀는 올해 이화여자대학교를 졸업하게 되며 재학중 장학생으로 있었다. “마음이 선하구, 재미있구, 재주꾼이구” 하며 자기 소개를 했던 이 숙자 자매의 유머어는 번역실 스태프들을 한층 밝은 가운데 일하게 한다고 전했다.



선교부 사무실 착공

그간 여러 곳에 흩어져서 일 할수 밖에 없었던 선교부 산하의 업무들, 한 건물에서 집무하므로서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해 11월 1일 착공한 선교부 사무실이 5월의 준공 일자리를 기다리

고 있다. 약 50평의 대지위에 만들어진 이 건물은 선교부와 선교부 산하 조직의 사무실로서 사용될 것인 바 점점 자리가 잡혀가는 모습은 보는 이로 하여금 우리 선교부의 커가는 모습으로 즐거움을 갖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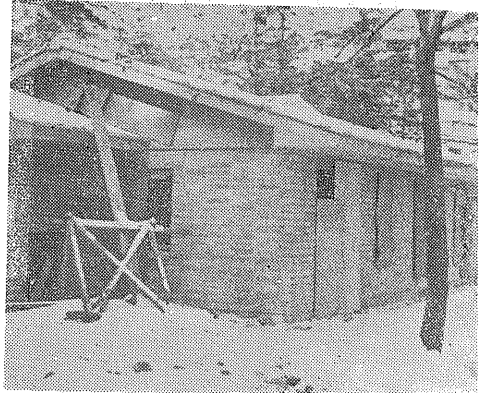


사진 : 눈에 덮혀 준공 일자리를 기다리는 선교부 사무실.

선교사 네분 귀국

지난 12월 29일 이땅에서 복음을 전하던 스펜서, 넬슨, 하퍼, 리브장로가 임기를 마치고 귀국 하였다.

민 경옥 형제가 침례서부터 장로 신권까지 승진되는 것을 보았던 것과는 별신 형제에게 침례 주기 위해서 공부를 하기전에 금식기도하던 것은 즐거운 추억거리라고 얘기를 했던 넬슨 장로와, 자기에게서 침례를 받은 인천의 허 채, 서부의 이상한 형제들이 교회에서 활동하는 모습을 볼때 커다란 보람 같은 것을 느끼게 되며 한국에 온지 3개월 반만에 2개월반의 마

호니 장로와 함께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전도하던 일은 지금 생각해도 얼굴이 붉어지는 일이었다면서 말하던 스펜서장로는 요셉 스미스의 이야기 밖에 몰랐던 자기의 한국말을 듣고 무슨 소리인가하고 귀를 기울여주던 애기등을 전하면서, 부산동구지부의 등산을 통해서 성도간에 사랑을 나눌수 있었던 기회는 좋은 것이었다고 했다.



사진 : 좌로부터 하퍼장로, 벨슨장로, 리브장로

한국 선교부 창설 한달 후에 부모와 함께 침례를 받고, 한국에 도착한 것이 창설 3주년 기념일인 1965년 7월 8일이었다면서 한국과의 인연을 얘기하던 하퍼장로는, 자기가 선교사로 온 후 아버지는 대제사가 되었던 것과 물론 생활의 반을 한국에서 보낸 것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 사람들은 훌륭하면서도 부족하다고, 있으면서도 없다고하는 겸손이 마음에 든다면서 아직도 복사빠가 아파서 한국식으로 편히 앉는 것을 배우지 못한 것을 섭섭해 했다고 했다.

언제나 한국말을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배웠었고 어려운 어휘를 구사할 줄 알았던 리브장로는 가장 아름다운 추억 거리는 한국에서 선교사를 하면서 있었던 이야기라고 했다.

수척해 보이는, 그러나 겉으로 다져진 그의 모습은 보는 이로 하여금 젊은 동안을 봉사로 보낸 흔적을 역역히 볼 수있게 했었다.

천 낙서, 김 성문 장로 귀환

우리들의 땅을 우리들의 손으로 복음을 퍼자는 큰 신앙으로 시작 했던 삼척지부 출신의 천 낙서 장로와 부산지부 출신의 김 성문 장로가 2년의 선교사 임기를 마치고 지난 29일과 30일 각각 정든 고향으로 떠났다.

선교사 생활 동안에 어려웠던 점과 무한히 즐거웠던 점을 글로 써줄 것을 약속했던 이들 귀환 선교사들은 요즘 신변정리를 하기에만도 하루해가 어떻게 가는줄 모르겠다고 했다.

선교사로 출발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이해가 필요한 것이기는 했지만, 귀환 후에는 부모님들이 적극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 그것을 제일 큰 축복으로 안다고 했던 두 귀환 선교사는 자기의 체험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다고 했다.

두 귀환 선교사중의 한분인 천 낙서 형제는 3월 9일 선교본부에서 결혼식을 갖는다고.

<제 11 회> 성도의 벗 퀴즈

【문제】 다음에 답 하시오.

1. 1시불림 1/2 리아하는 빵 한 덩어리를 은화 1에즈림을 주고 사면 얼마나 남겠습니까? 가능한 화폐를 한 단위씩 받도록 계산하십시오.
2. 엠몬인 2천 용사의 대장은 누구였으며, 진을 쳤던 곳은 어디며, 첫 전쟁에서 몇명이 부상 혹은 사망했습니까?

<힌트> 엘마서

【응모요령】

1. 성도의 벗 퀴즈 제 몇회분임과 주소, 소속 지부명을 명기할 것.
2. 해답은 3월 15일까지의 도착분에 한함.
3. 5회 정답자 5명에게는 성도의 벗 1년분을 우송함. 단, 정답자가 많을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함.

<제 9 회> 정답 및 정답자

【문제와 정답】 다음에 답 하시오.

1. 신, 구약 성서중에서 제일 많은 장수를 가지고 있는 책의 이름과 제일 적은 장수를 가지고 있는 책의 이름은?

답. 제일 많은 장수의 책...이사야서.

적일 적은 장수의 책...요한2서

※ 제일 많거나 큰 것이 하나인 것 처럼, 제일 적은 것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1장의 책이라고 해서 모두가 제일 적은 것일 수는 없습니다. 문제에서 시편에 대한 얘기가

없었으므로 제일 많은 장수에
는 시편을 제외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2. 다음의 공백을 메우고 출처를
쓰시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
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
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
기 있는 곳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마태복음 2장 9절)

【정답자】

부산동구	방춘성(5)
청운	김일수(1)
동부	차미례(1)

물 문 전 시 장



전 주 여 행 기

전주에서 있었던 물문 전시회와 선교부장님의 강연을 찾아 기자는 선교부장, 천 낙서, 이 정현, 태 일로, 한 인상 장로들과 함께 1월 19일 3시 30분 여수행 특급 열차에 몸을 실었다.

한 겨울의 차창은 모나지 않은 한국의 농촌 풍경의 멋을 더해주는 듯 했다. 이리에서 부산지부장 배 영천 형제를 만난 일행들은 상륙한지 얼마 안되는 동안에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전주지역에 대한 얘기들로 가득 했었다.

예기치 않은 투신자살 소동으로 30분이 늦은 오후 7시 40분에 도착한 일행은 박 주인, 신 영자, 홍 범식 등의 전주 성도들과 선교사들의 마중을 받으며, 선교사들이 전주여관이라고 이름지은 역 근처의 선교사 집으로 향했다.

도착하면서 시작된 선교사들의 복음 토론회를 뒤로두고 기자 일행은 박 주인 형제의 뒤를 따랐다. 박 형제의 집은 선교사집에서도 도보로 약 15분 되는 전주 향교 앞이었다. 일행은

전주 물문의 첫 아들인 인영군의 인사를 받았다.

그 후 일행은 다시 홍 범식 형제가 운영하는 외국어 연구원을 찾아 홍 형제의 강의 모습을 살펴보고 숙소로 돌아왔으나 11시인 그때까지 선교사들은 토론회를 계속하고 있었다.

오랫만에 만난 선교사들은 오랫동안의 얘기들로 밤 깊은 줄을 몰랐고 선교사 휴일인 다음날엔 늦장들을 부렸다.

다음날 전주에는 눈이 왔고, 기온은 전주에서 가장 추운 날이었다. 이상하게도 교회의 지도자들이 방문하는 곳마다 이상 기온이었던 것을 기억하며 전주여관은 아침일찍 최근에 침례받은 대전 방송국장 정 인식 형제를 첫 손님으로 맞았고 일행은 지역장 차 일선 장로가 계획한 예정에 따라 정 인식 형제의 차로 전주지역 인사 방문 길에 올랐다.

8시의 첫 방문은 고 김 호직 박사의 친척이 되는(사모님의 친조카) 박 병무씨를 광주 보건 위생소로 찾았다. 소장으로 있는 그분과 축복이 이

뤄지고 있는 (칼슨 장로가 선교사 복무를 연장하면서까지 가졌던 관심이 이뤄져가고 있다는) 전주지역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서 약속된 전주 시장 실로 향했다.

9시에 도착한 일행은 공무로 외출 중인 시장을 대신해서 부 시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물론이 전주에 상륙했었음을 이야기 했다. 친절했던 부 시장의 배움을 받은 일행은 전북 도지사 이 정우씨를 찾아 도청으로 향했다.

친히 영접했던 도지사는 인천에 와 있는 천파운드의 재해구호품을 전북에 전달할 용의가 있다는 선교부장님의 제안에 심심한 사의를 표했었고, 사회국장 최 상환씨는 전북 재해 상

황을 부리핑해 주었다. 2만 6천 7백 가호에 16만 6천명의 조제민은 전북도민의 34%에 해당한다는 엄청난 재해에 우리의 조그마한 것이 도움이 되기를 바랬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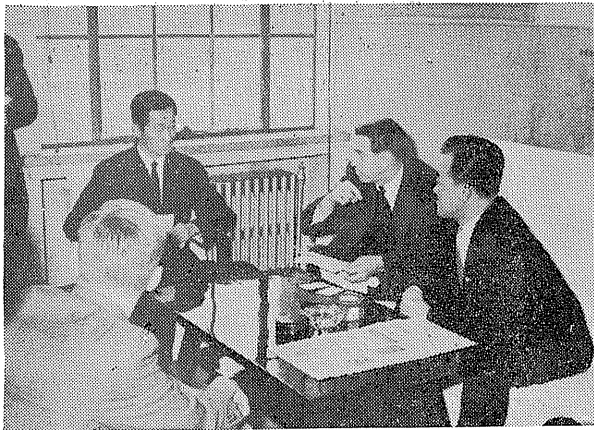
도지사와 면담중인 선교부장은 10여명의 기자들의 방문을 받고 회견을 가졌다.

회견을 끝낸 일행은 경찰국장 박 만영씨를 찾았다. 그는 이 재수 형제와는 학교의 후배관계에 있는 분이였다. 약관 20세에 경찰에 투신해서 35세에 경찰국장에 있는 그는 선교사의 방문을 몇번 받은 바 있었다고 했다.

특기할 사실은 그때까지 정 인식 형제의 놀라운 선교사 경신은 친히 그의 차로써 선교부장 일행을 안내



충북 적십자사에서 있었던 영화 "인간의 행복의 추구"를 관람하는 전주 시민들



上左 : 전주 주재 기자들과 회견하는 선교부장



上右 : 3층에 걸려있는 전주 지역의 교회표식

中 : 전시장(교회)을 빛내기 위해 각계로부터 보
내온 꽃

下 : 전시장 준비에 바쁜 선교사들



내하면서 유창한 영어로 통역을 맡아 모든 사람을 흐뭇하게 했다는 것이다.

그후 일행은 전주지역 육군 방첩대장인 김 희오 중령을 찾았다.

평소에 종교 철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던 김 중령과는 깊은 토론을 가졌었고, 오전을 이렇게 보낸 일행이 “희망의 집”이라는 곳에서 점심을 드는 동안 광주로부터 전시회를 돕기 위해 찾아온 화이트, 이 구남 장로를 만났었으며 일행은 경원동의 새로운 집회장소로 갔다.

종교의 필요성과 교리를 알기 쉽게 그림으로 그려 놓은 전시장에는 수백명의 전주 시민이 몰몬과의 만남을 위해 왔었고, 선교사에게 복음을 듣고, 책자를 받고 질문을 하는 등 진지한 가운데 시간이 흘렀다.

저녁 7시 30분부터 전북 적십자사 3층에서 영화상영 및 선교부장님 강연회를 가졌다. 그 모임에는 서울에서 내려온 이 호남 형제가 합세했으며, 영화를 끝낸 150명의 인원은 정 인식 형제의 사회와 한 인상 형제의 통역으로 “생활을 중심으로하는 몰몬정신

의 특성”을 주제로 강연을 들었으며 듣는이로 하여금 많은 감동을 갖게 했다. 강연과 질의를 전부 끝냈을 때 청중은 우뢰같은 박수를 보내어 연사의 노고에 답했었다. 열시를 조금 넘겨 집회를 끝낸 일행은 일요일의 예정을 위해 출발해야하는 한 인상, 태일로, 화이트, 이 구남, 장로들이 11시 10분 차로 서울로 떠났고 나머지 사람들은 선교사 숙소로 돌아갔다.

다음날, 흥 범식 형제의 “외국어 연구소”에서 있었던 10시 30분부터의 주일학교 모임에는 가장 많은 인원인 30명이 참석했었다.

가장 많은 저항이 있으리라 생각했던 전주에서의 선교는, 구하면 주시리라던 하나님의 약속이 실천되는 곳으로서 우리들에게 많은 일의 의욕을 갖게했다. 아직 침례를 준 일은 없지만 13명의 전주지역 회원들은 주님의 산 증인으로서 모두가 선교사라는 사명감을 갖고 생활하고 있었다.

오후 2시 15분 일행은 그곳의 13회원과 선교사의 배웅을 받으며 점점 뻗어나는 전주의 축복을 감사하며 서울행의 길에 올랐다. (상)

만복의 근원 하나님

은 백성 찬송 드리고

천국 무리 찬양하라

찬송 성부 성자 성신

<찬송가 51장>



교회의 복장 표준

시대의 흐름은 여성뿐 아니라 남성에게 까지도 좀더 화려하고 대담한 옷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복장과 얼마큼의 거리가 있는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 최근 상호향상회 총본부에서 만든 「젊은이를 건강으로 이끌기 위하여」라는 책에서 이야기한 몇가지의 복장을 소개합니다.

특히 이 책은 교회의 젊은 남·녀 회원을 위해 쓰여졌고 대관장단과 12사도회의 추천이 있어 교회 회원 각자가 이를 준수하도록 발표된 바 있습니다.

복 장

바른 복장에 대한 교회의 표준은 교회의 젊은이가 어느 곳에서도 항상 품위가 있고 입기 편리하도록 이끌어 주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모범적인 복장에 대하여 일반론을 편다는 것은 곤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치수라할지 디자인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어떤 사람에게는 어울리나 다른 사람에게 그렇지 않은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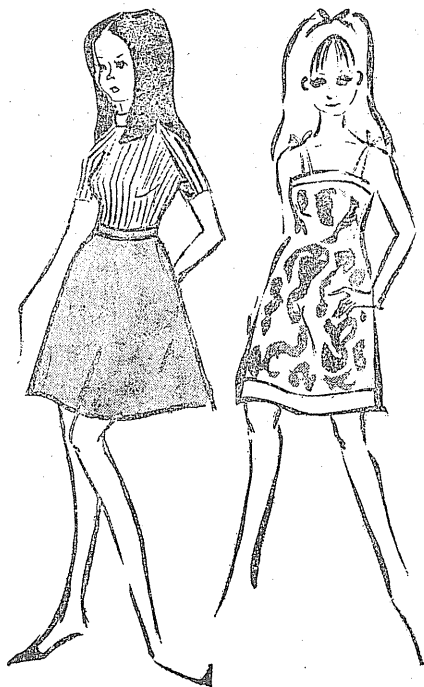
가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가 학교에 가거나, 교회 성찬식 또는 다른 집회에 참석하거나, 댄스, 운동, 캠프 활동에 참가하거나, 집에 있거나, 외출 하거나, 교회의 표준은 젊은 남녀가 항상 바른 복장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단정한 복장은 젊은이를 지키며 그들이 정결하고 건전한 생활을 하도록 도와주는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여성은 그들 자신의 자연스런 아름다움과 여성다움을 높여주는 복장을 취해야만 하겠습니까. 의복은 육체미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보고 기분이 좋으며 매력적이어야 하겠습니까. 예를들면 스카트는 무릎을 덮을 정도로 길어야 하겠고, 또 몸에 밀착할 정도로 얇은 것이어서는 안되겠습니까. 의상은 상부나 목덜미를 극단적으로 깊이 파지 않은 것이어야 하겠습니까. 스트랄 레스—어깨 끈이 없는것—나 스파게티 스트랄—어깨 끈이 두서너줄로 된 것—은 주야간을 막론하고 부적당 합니다. 백 레스—뒤가 너무 파진 것—나 스트랄 레스의 의상이 어울릴 여성은 거의 없음



스트랩 레스 베레스



미니 스카트 스파케티스트랩

니다. 미니 스카트도 금합니다.

가정에서 일 할 때, 하이킹, 캠프, 운동 등에 참가할 때 여성은 적당한 바지를 입어도 괜찮겠습니다. 그러나 몸에 밀착할 만큼 얇은 것은 안되겠습니다. 자전거용 부인 반바지, 남자용 반바지, 버뮤다 슬렉스—무릎위 8cm의 짧은 바지—등에 관계없이 무릎까지 내려온 것이면 괜찮습니다. 쇼핑 —장보기— 학교, 도서관, 식당, 다방에서의 젊은 여성의 바지 모습은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 가정복은 가정에서만 입을 것이요, 외출복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몸에 밀착한 웨타 및 의복은 어떠한 종류를

막론하고 말일성도의 복장으로 적당하지 않습니다. 비키니, 세파레이트—아래 위가 붙었으나 많이 파진 것—와 같이 품위없이 몸을 노출시키는 수영복은 입지 마십시오. 수영복은 수영이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수영할 때만 입을 것이요, 그 외에는 착용치 말아야 하겠습니다. 해안이나 수영장에서 왕복할 때는 완전한 복장을 갖출 것이요, 적어도 카운으로 가려야 하겠습니다.

젊은 남성이 너무 통이 좁은 바지를 입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드라이브 할 때, 정원 기타 어떤 곳에서 일할 경우 적당한 사쓰와 바지를 착용하

는 것은 무방합니다. 짧은 바지는 실제로 활동적인 운동을 할때에만 입어야 하겠습니다. 짧은 남성은 때와 장소에 따라 항상 적절한 복장을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학교 또는 교회에서 열리는 특별한 댄스 파티에서는 정장하고 넥타이를 매야 하며, 테니스 운동화, 티셔츠를 착용치 말아야 하겠습니다. 정식이 아닌 댄스의 경우는 운동 자켓 또는 드레시 세타는 무방합니다. 짧은 또는 어떠한 종류의 운동복도 예배당 안에서는 착용치 말아야 하겠습니다. 적절하며 어울리는 복장을 선택하는 데에는 지혜와 상식으로서 판단해야 하겠습니다.

부적당한 의복, 크리프, 머리 모양

여성은 언제나 여자다운 복장을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평시에 여성이 남장을 하는 것은 피해야 하겠습니다. 복장은 그 사람의 행동을 좌우합니다. 더럽고 단정하지 못한, 몸에 맞지

않는 의복은 누구든지 공석상의 옷으로는 부적당 합니다.

단정한 부인은 크릴셰트를 달고서 사람 앞에 나서거나 장보러 가지는 않습니다. 여성의 머리는 자연 그대로가 보다 어울리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짧은 남자의 머리가 너무 길어도 안되겠습니다. 기발한 머리형은 남성에게도 똑같이 바람직 한 것이 못됩니다.

머리 손질

손질이 잘되어 있어 깨끗한 머리는 교회의 표준을 반영시킨 것입니다. 의복이 깨끗할 뿐만 아니라, 손톱, 피부 및 머리가 세밀하게 손질되어 있는 것은 그 사람의 건전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육체의 청결 및 의복의 정결은 그 사람의 인격과 명성을 돌아줍니다. 여성이 화장할 때에 미용술이란 단지 자연미를 과장하는데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하겠습니다. 지나친 화장도 피해야 하겠습니다.

(51 페이지의 계속)

분명히 나의 소유입니다. 나의 행복입니다. 나의 남편은 내가 꿈꾸었던 이제 그 사람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많은 변화를 가져 왔습니다. 말일 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나에게 큰 선물을 했습니다. 내가 바라던 그 가

족, 그 아빠, 그 사랑 그것을 나는 선사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가정은 경제적인 면도 차츰 회복되는 것 같습니다. 아빠의 사회적 활동도 체도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정말 모든 면에서 큰 선물입니다.

교회음악에 관한 지시사항



정 대 판

1. 정규 집회에서의 유의사항

여기에서 정규 집회라 함은 성찬식, 간증회, 주일학교(지금 한국에서는 성찬식을 잇대어 갖기 때문에 성찬이 없지만 원래는 갖게 되어 있는 것임)등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아래에 나열되는 사항들은 말일 성도의 어느 집회에서나 적용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1) 각 집회 사회자는 반드시 지휘자 반주자를 미리 선정해 두어야 합니다.

2) 특별 음악 순서(합창, 중창, 독창, 악기 연주)가 있을 경우 사회자는 그 연주자가 성실한 연주를 할 수 없는 사람이거나, 곡이 예배에 적당하지 않거나, 연주가 의심스러울 때에는 연주를 거절해야 합니다.

3) 사랑의 노래, 유행가(국내외) 우리의 신앙에 배치되는 가사의 노래(아베 마리아와 같은 것) 행진곡은 금해야 합니다.

4) 특별 순서를 맡은 분은 집회가 시작될 때 부터 끝날 때까지 참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외부에서 초청해서 연주를 부탁할 경우 연주가 끝나자마자 퇴장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5) 전주(예배 시작전 기악 연주를 말함)는 적어도 5~10분 전에 시작되어야 합니다.

6) 전주 음악이 연주되는 동안 합창단, 지휘자, 그 밖의 사람은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합니다.

7) 회중이 한 집회에 한 두곡은 불러야 하며 폐회 찬송은 꼭 회중이 부르도록 해야 합니다(상향회 모임은 예외).

8) 서주(찬송을 제창하기 전 음정과 속도를 알리기 위해 치는 반주)는 찬송가의 첫째 단과 마지막 단을 연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회중이 잘 모를것으로 생각될 때 지휘자는 반주자에게 전곡을 치게 하여도 무방합니다.

9) 회중의 수가 적고 폐회 시간이 촉박했을 경우 첫 마디만 듣고 바로 찬송을 불러도 무방하며 몇 절을 생략해도 됩니다.

10) 간주가 필요하다면 2절이 끝난 다음에 하도록 합니다.

11) 지휘자는 회중 앞자리 중간에 서서 지휘봉으로 지휘해야 합니다.

12) 회중이 찬송을 부를 때 올겐은 절대로 tremolo 로 연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13) 성찬이 집행되는 동안에는 어떠한 음악도 연주되어서는 안됩니다.

14) 지부, 지방대회시 휴식을 취하면서 부를 때를 제외하고는 앉아서 찬송을 불러야 합니다(합창대, 유년주일학교, 초등협회는 예외.)

15) 폐회기도가 끝난 다음에는 예배 시간에 가졌던 영적 분위기를 그대로 지니고 집에 갈 수 있도록 음악 연주는 하지 않습니다.

2. 연주시의 유의 사항

1) 전주를 위한 곡 선정이 잘 되어야 합니다.

전주용 음악이 따로 있으나 구입하지 못해서 찬송가를 치는 경우가 허다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찬송가를 피하시고 부득이 찬송가를 연주할 경우 속도가 비교적 느린 찬송을 연주하면 좋겠습니다.

2) 문제는 전주를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 없다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가치있게 들려줄 수 있는가에 있습니다. 훌륭히 경건하게, 듣기에 아름답게, 흥미있는 멜로디와 경건한 화음이 연주되어야 합니다.

3) 주의 깊게 전주 곡이 선정되었

으면 충분한 연습을 하고 잘 연주되도록 해야 합니다. 잘 연주 된다는 말은 연주되는 곡이 지니고 있는 기분을 살리고 올겐인 경우 페달 조정이 제대로 되어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곡의 크라이막스를 알아차려서 고조시켜야 하며 증음기 페달 사용을 조심히 잘 해야 합니다.

4) 성찬이 집행되는 모임에서는 정규집회유의 사항 제 2항의 곡을 전주곡으로 선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5) 전주곡의 연주 소요 시간을 재어 두고 각 곡마다 그 소요시간을 기재해서 사회자가 사회하기 직전에 전주가 끝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연주합니다. 시간이 모자랄 경우 적당히 속도를 빨리하거나 몇 마디를 건너연주하고 시간이 남을 경우 느리게 연주하거나 적당한 곳에서 반복해서 사회자와 호흡을 맞추어야 합니다. 전주가 끝나기도 전에 사회자가 말하거나, 연주가 도중에서 끊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6) 올겐인 경우

음전(音栓)을 둘 이상 사용하는 곡을 선정하여 음전을 바꾸어 연주하면 한곡을 가지고 두번 연주하는 셈이 됩니다. 음전을 바꾸면 새 기분으로 감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음전은 악질이 끝났을 때나 휴지부에서 변경시킬 일이며 절대로 건반을 누르고 있을 때 바꾸지 말아야 합니다.

7) 피아노인 경우

한 옥타브 올리거나 낮게 치면 같

은 곡일지라도 기분이 달라집니다.

3. 지휘자의 유의사항

1)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위치에 (반주자에까지도 포함) 똑바로 서야 합니다.

2) 가슴을 펴고 섰으며 움직이지 말아야 합니다. 발을 굴러다든지 고개를 흔들지 말아야 하며, 지휘봉을 든 손의 움직임이 말아야 합니다.

3) 팔목으로만 지휘해서는 안됩니다. 팔을 전체적으로 움직이되 손이 눈과 가슴 높이 사이에서 움직이게 해야 합니다. 팔꿈치가 밖으로 뻗어 튀어 나오지 않는 각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4) 얼굴 표정과 음성을 노래의 기분에 맞춰야 합니다. 우울하거나 성난 표정을 짓지 말아야 합니다.

5) 과장된 제스처어를 금해야 합니다. 특히 합창을 지휘할 때 처럼 왼손을 움직이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6) 껌을 씹지 않습니다.

7) 부르는 곡의 박자와 지휘법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먼저 머리에 생각하고 다음으로 손을 흔들어야 합니다.

8) 곡에 제시된 속도는, 적당한 속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회중에게 이 끌려 간다거나 회중을 몰아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9) 찬송가만 보고 있을 회중을 위해 하얗게 칠이 된 지휘봉을 사용합시다. 일반적으로 손이 머리위나, 허

리 아래로 내려가면 안됩니다.

10) 반주자와 부르게 될 찬송가에 대해 사전에 의론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서주의 끝을 잘 몰라서 서로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11) 천편일률적인 지휘방법을 피하도록 합시다. 변화성 있게 지휘합니다.

12) 반주자와 회중에게 정중하게 대해야 하겠습니다. 존경심을 나타내 보이지 않는 지휘자를 따를 회중은 없을 것입니다.

13) 집회 시작 전에 정위치에 앉아서 전주 음악이 연주되는 동안 경건성을 나타내 보여 모범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4. 반주자의 유의 사항

1) 바로 앉아서 필요없이 몸을 움직이지 않아야 됩니다.

2) 서주의 속도에 조심해야 합니다. 회중은 반주자의 서주로그 곡의 속도를 알아 차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3) 회중이 노래할 때 tremolo 나 virbato 를 사용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4) 피아노인 경우 페달 사용법을 익혀 두어야 하겠습니다.

5) 지휘자의 시작과 끝 맺음을 잘 알아서 호흡을 맞출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6) 악보에 있는 대로 칠 수 있도록 철저히 연습해야 되겠습니다.

동교동 — 七七번지를 찾아서

손화선 · 박옥희



<박옥희 자매님이 침례 받던 날>

나의 생을 돌이켜 보건데 너무 고달프고 먼 여정이었습니다. 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약 5~6년이란 세월은 온통 사회에서 유리된 채 칠흑같이 어두운 긴 밤의 연속이었습니다.

처가 있고 자식이 있는 젊은 몸인지라 이리 뛰고 저리 뛰어도 보았습니다. 어디를 가나 차거움, 거기에 병마 마저 걸친 나의 몸은 사람이라기보다 차라리 벌레먹은 하나의 낙엽에 불과하다는 것이 옳은 표현일 것 같습니다.

동서남북— 이리 굴리고 저리 채이고, 밟히고 흘러 나리고, 떨어져서 연약한 팔로 붙들고 늘어지기에는 나의 팔의 힘이 너무나 연약하고 보잘 것 없었습니다. 땅을 치고 통곡도 해보고 강한 알콜에 나의 몸과 마음을 온통 담구어 버리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나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세상에 인간에게 자비를 베푸는 신이 있단 말인가?, 이러한 신이 있다면 확실히 이것은 거짓이다. 신의 능력이 있다면 그 결과는 잔인의 연속에다 결국 허무로 끝나는 것이다.」 나는 이렇게 밖에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떤 때는 장로교인이었던 친척들이 교회에 나가 보기를 권했었습니다. 쳐도 권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가도 보았었습니다. 그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신도 기아와 질병 그리고 정신 상실

에서 허덕이는 나를 구원 하기에는 너무나 미약한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날, 하늘은 무한히 높고 맑은 날이었습니다. 여기에 취해 길을 걷는 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것은 활발한 노방 전도반이었습니다. 나는 문득 젊은이의 우렁찬 진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 하였습니다. 그들의 굳은 간증은 회의에 빠져있는 나에게 많은 것을 생각케했습니다. 순간 나의 몸에 멧었던 피가 다시 생기를 얻어 회전 하기 시작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이후 말일 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계속되는 시간에 나의 컷전을 울리는 허다한 진리의 말씀에 날이 갈수록 나의 두 주먹은 힘껏 쥐어졌습니다. 「요셉 스미스」를 알았습니다. 「브리감 영」을 들었습니다. 개척대를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이 이제까지 나에게 어두웠던 세상이 밝은 빛으로 변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에게서 이제 죽었던 의욕이 되살아난 것입니다. 계속된 시간은 흘러서 주일학교, 상호향상회, 신권회등은 나에게 있어서 이렇게도 설레이는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세상은 모두가 친밀감을 주는 것뿐입니다.」

「활동」 「발전」

이 모두가 샘솟는 말들이요, 행동들입니다. 샘솟는다는 것도 표현 부족입니다. 이 교회야말로 인생을 우

렁차게 솟아 오르게 하고 구비쳐 뻗어 흐르게 합니다.

이제 나는 느꼈습니다. 이것이 「쟁」이라구요. 이제 우리 가정은 물론 가정이 되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절망이란 없습니다. 나의 앞에 보이는 것은 부풀어 오르는 희망이요 발전하는 나의 가정의 설계도입니다. 나의 부인과 나의 네 귀여운 자녀와 함께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의 능력이 우리가 감사를 느끼지 못하더라도, 항상 우리의 발전을 도우신다.」

■ ■ ■

「살면 무얼해 죽어 버리지」

비좁은 방에서 술에 취해 주먹으로 방 바닥을 내리치며 발버둥 하는 나의 애기 아빠. 그럴때면 나는 천정만 처다 보며 안겨있는 애기의 볼에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놓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1960년경, 이때 우리 애기 아빠에게는 너무나 심한 바람이 불어서 우리들의 희망은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저는 부산인 시집에서 서울에 있는 친정으로 올라오고 잇따라 애기 아빠도 서울로 오기는 하였으나 내가 있는 처가에는 자존심때문에 잘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때는 노숙도 하고, 노동판에도 뛰어다니고, 친구의 눈을 피해 뒷골목만 다닌다는 허름한 차림의 애기 아빠의 소문을 듣고 얼마나 괴로워 하고 하나님께

우리 가정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 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아빠의 치욕은 무엇보다도 나를 괴롭혔습니다. 부산서 테로를 당해 앓아 누웠을 때나, 서울서 인생의 밑바닥을 걷고 있을 때의 나의 쓰라린 심정은 이루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든 어느날 검은 작업복 차림의 애기 아빠가 나를 찾았습니다. 무표정한 아빠의 인상에도 나는 너무도 반가워서 애기 아빠의 손을 덥석 잡았어요. 그이는 목석같은 표정이예요.

「코생 많았지.」

그이의 음성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 했습니다. 어드름 나의 눈에 눈물이 흐름을 알았습니다.

「여보 집으로 들어갑시다.」

나는 아빠에게 매달렸습니다.

「굶어도 좋으니 안으로 들어갑시다. 설마 친정이고, 내가 이때까지 살았는데 당신을 굶기겠소. 이 모양이 무어예요. 어서 들어갑시다.」

그러나 그이는 반응이 없어요.

「애기들 잘 있지 돈 좀 생기면 또 오지」하고 돌아서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더 권하지는 않았습디다. 아빠의 성미를 잘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이는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쇠꼬챙이 꼬집통이었습니다. 옷깃에 떨어지는 아빠의 눈물을 달빛에 보았습니다. 나는 방에 뛰어 들어와 왈칫 아이들을 안고 밤새껏 울었습니다. 미친듯 기도도 하였습디다.

「애기 아빠가 집으로 돌아와서 죽

이건 밥이건 같이 먹고 우리 아이들과 같이 가난한대로 살게해 주십시오.」라고요.

나는 그 당시 친정을 따라 어릴적부터 장로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5,6개월이 지난 후 아빠와 우린 같이 모였습니다. 그런대로 행복한 생활이었습니다. 나는 아빠에게 교회에 나가기를 권했습니다. 아빠는 권하는 사람의 체면을 보아서인지 몇번 나갔었습니다. 그러나 아빠는 교회가는 시간이 제일 괴롭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이는 저에게 「처가에 살고 있으니 처가 사람들의 체면을 보아서 억지로 나간다」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나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아빠의 사회 활동도 가능해 질 터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도 남처럼 꿈을 키울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점차로 감기인줄로만 알고 약을 잡숫던 애기 아빠가 몹씨 기침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약도 써 보았습니다. 그러든 어느날 선지피를 토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족의 사형선고 같았습니다. 나는 동분서주 뛰어 다녔습니다. 그이의 생명만이 나의 전부이다. 그이를 죽일순 없다. 그 어떤 힘이라도 그이를 우리 가정에서 떼어낼순 없다. 나는 이렇게 부르짖으며 갖은 고난을 다 겪었습니다. 하는 수 없어 아빠를 부산으로 보냈습니다. 그 이후 세 어린이를 데리고 직업을 가진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친정의 도움을 받아 편물기를 사

서 그것으로 생활을 이어 나갔습니다.

근 일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아빠가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 왔습니다. 우리는 다시 용기를 얻었습니다. 교회에 같이 나갈 꿈도 꾸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용기를 얻어 애기 아빠에게 권했습니다.

「여보 교회에 갑시다. 주일에 집에 우두커니 계시면 무었해요. 예배나 같이 봐요.」

「교회에 가서 그 설교 들으려니 허리도 아프고 팔다리가 아파서 견딜 수가 있어야지 당신이나 다녀와요.」 이렇게 딱 거절해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몇번 권하다가 저도 단념했습니다.

어느 날인가 어디를 가시겠다고 옷을 갈아 입으시기에 나는 물었습니다. 「지금 이시간에 어디를 가지지요?」 「교회엘 좀 가야겠요.」 「오늘 교회가는 날도 아니고, 시간도 아닌데요?」

「그 교회가 아니구 말일 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라는 곳을 가는 거예요.」

애기 아빠는 그 이후 계속해서 교회 공부를 다니셨고, 책자도 가져왔습니다. 이윽고 선교사도 우리 집에 찾아 오시고 이렇게 시작하여 애기 아빠는 열심으로 교회에 다니셨고 진심으로 기도도 하였습니다. 나는 처음 장로교가 아닌 것에 좀 당황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저렇게 하시다 참 믿음이 생기면 우리 교회로 오시겠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이후 계속되는 교회를 대하는 애기 아빠의 태도가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빠는 그 교리를 확실히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이는 어느날 나를 보고,

「우리 같이 교회에 나갑시다. 좀 어려운 문제도 있겠지만.」

이렇게 말씀 하시는 아빠의 표정은 지금까지 내가 보지못한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그토록 자신이 넘쳐흐르고 여유만만한 얼굴은 처음이었습니다. 나는 나도 모르게 대답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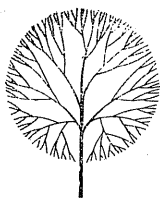
「나가겠습니다.」

순간 마음이 열리고 온통 이 세상의 행복을 나 혼자만이 가진 것 같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당시 저에게 있어서 교리의 차이라는 것은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우리들의 사랑하는 애기 아빠가 진리라고 믿는 그것을 부정해야 할 아무런 이유를 찾지 못했었습니다.

나는 애기 아빠와 같이 신앙을 가질 수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무척 행복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이 귀여운 애기들! 그리고 이 애기들의 아빠.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놓고 보면 모두가 내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복음안의 가족이어서 실제의 가족이며 영육의 가족입니다. 이것은

(44 페이지에 계속)



[이곳]과 [그곳]

△ 오계희

“어느 민족에게나 미덕을 발할 능력이
천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계시는 형제 자매님,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그간 소식드리지 못한 것을 이곳 생활이 바뀐 때문이었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변명이 될 것이니, 저의 불충실이었다고 솔직히 말씀 드리고 용서를 빌어야 옳을 것으로 느낍니다.

그 곳 편집자의 부탁을 전해 받고 몇가지 생각한 뒤에 「이곳과 그곳」이란 제목을 택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이곳과 그곳은 삶에 있어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여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이 믿거나 생각하기를 세상의 어느 곳은 편한 곳이고 어느 곳은 그렇지 않을 곳이라고 할테지만 실제 그런 것인가를 다음의 몇가지 경험을 예로 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씀은 「그곳」에만 있는가?

나날이 닥아오는 자기의 처신할 바를 위하여 어떤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오랜 궁리의 시간을 지내야 하는 경험. 책임진 사람을 대하거나 어느 사람을

대함에 있어 예의와 조심된 태도로 걱정을 하여서 이루어 졌던 때도 있고 실망한 때도 있었던 경험. 무엇을 성취하고 싶은데 이미 다른 사람이 차지하고 있어서 늦은 자기로서는 방해하고 싶은 그런 때. 갈등을 억제해 가며 자기를 누르고 예의있는 태도로 임하여야 하는 경험. 어떤 목적을 생각했을 때 거기에는 여러가지 요구 조건과 경쟁 상대가 있어서 그것을 이룰 수 없을 때. 조급함과 안타까움을 억제하고 오랜동안 목적을 마음에서 잃지 않고 실망을 느끼면서도 참고 준비하여 가가이 갈 수 있기를 바라는 불안의 경험이 있다면 애씀은 「이곳」에도 있는가 싶습니다.

「어느 곳이나 다 낙원은 아니오」

제가 이곳의 어느 교수에게서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특별히 교훈적이 었다고 생각치는 않습니다만 그것이 저와 같은 처지에 있게 된 사람 즉, 의례히 「이곳」이라면 모든 것이 쉬우리라고 생각하고 이곳에 온 저 같은 사람에게 들려졌기 때문에 생각해

불만한 말씀이 된 것 같습니다. 「어느 곳이나 다 낙원은 아니오…」라는 말씀을 듣는 순간 감각이 예민했던 탓이 었는지 지나쳐 들리지는 않았읍니다. 어떤 의도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릅니다만, 그러나 그 분의 말씀은 이땅에 있는 동안 마음가짐에 항상 경계를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인 것으로 받아 들어서 생각하였읍니다.

그 분의 헝크러진 머리칼, 그 밑으로 주름잡힌 탄탄한 이마, 피로한 듯한 모습 그러나 섬광의 눈, 그런 분은 꼭 무엇과 즐기치게 싸워 온 것 같은 인상을 받게 하는 것이어서 말씀이 그렇게 들렸는지도 모르겠읍니다.

극복해야 할 어려운 일들은 이곳에도 언제나 누구에게나 있는가 싶읍니다.

근면성과 협조성의 밑바닥

이곳 사람들을 근면하고, 정직하고, 협조적이고, 「발달한 문화」를 이룬 모든 미덕을 가진 사람들인 것같이 말합니다만, 그것이 사실이라면——그렇다고 하여도 좋겠지요——이곳 사람들이라고 그러한 미덕을 발할 능력이 특별히 선천적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해야 하는지 혹은 이곳에 있다고 그러한 미덕이 저절로 발해질 수 있게 되는 것인지요?

이곳에서 강의 하시는 분 중에 소아마비로 어릴적부터 한쪽 다리를 쓰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인자와 실

력을 겸한 분이어서 늘 고개가 숙여지는 분입니다. 그 분은 자주 속계를 내는 분으로서 속계를 받을 때에는 字句까지 일일이 고쳐서 엄격할 정도로 평하고 끝에는 친절한 지시를 해주어서 언제 그만한 시간을 가지고 검정하셨는가 하는 것에 매번 놀라곤 하는 분입니다. 더욱이 늙으신 불구의 몸 에, 그 분이 쏟는 노력은 상상하기 힘든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의 말씀이 “그 분은 아직도 투지력이 대단합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면을 눈으로 볼 수 있는 노동력 같은 것으로, 보다 생활의 전반을 통하여 작용하는 「꾸준한 힘」으로 해석한다면, 그 밑에 받침하는 힘 즉, 노력이나 투지력이 더 중요한 관찰의 대상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곳」 사람에게 그런 노력과 투지력이 더 많이 주어진 것이고 「그곳」 사람에게겐 적게 주어진 것 일까요?

B. Y. U. 의 질서

누구든지 이곳 B. Y. U. 의 캠퍼스를 지나서 사람이면 가장 잘 정돈된 질서 속에 품행 바른 학생들이 많다는 인상을 받는다고 합니다. B. Y. U. 가 물론 교리의 큰 이상과 규율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러한 향취를 풍긴다고 하겠지요. 그러나 이같은 캠퍼스내의 질서와 또한 학생들의 바른 품행 그리고 남다른 향학열을 위해서 애쓰는 교회 당국과 학교 지도자들의

관심은 그 어느 것에 비하여 심각한 것이라고 합니다. 말일의 복음의 이상을 어떻게 학문의 입장에서 구현시키느냐 하는 깊은 연구와 토의가 계속된다고 합니다. 매일과 같이 교수회와 학측회의가 소집되고 혹 그중에 없지않을 열등학생을 선도하기 위한 교수와 학생대표의 회의가 열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가장 질서 있는 B. Y. U. 의 캠퍼스도 이 같은 교회 당국과 학교 책임자들의 고심과刻苦의 심려로 유지되는 예를 봅니다. 그분들의 노력이 그만하기에 오늘의 훌륭한 B. Y. U. 가 있고 지금도 미국내의 어느 대학에도 지지않는 학교의 기풍과 종교적인 신앙과 높은 학문의 수준을 위하여 연구를 쉬지않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곳」과 「그곳」

「이곳」과 「그곳」을 비교하여 보면 차이나는 것을 발견 합니다만, 애를 써야 살 수 있다는 근본은 다름이 없지 않은가 싶습니다. 희노애락이 이곳에 있듯이 맞부딪쳐 해결해야 할 문제는 이곳에서도 피할 수 없는 것이나 같습니다.

우리 개개인의 성장도, 우리 교회의 성장도 다 같이 애써 사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은 「이곳」이나 「그곳」이나 같은 것으로 느껴진다고 해도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부족한 글월을 줄이면서

Oh, Ke Hi

458 E. 600 N.

Provo, Utah, 84601

<29페이지의 계속>

혁혁한 전과를 올려 6개의 훈장을 수여받았다. 이 외에도 무사고 비행 조종사, 은성 무공훈장 등의 훈장을 계속 수여 받았다.

그 사람 혼자의 힘으로? 그의 인간 신념, 철학으로? 그가 그리도 뛰어난게 용맹스러웠고 앞으로도 용맹스러울 수 있는 원인이 있다면 과연 무엇일까? 국가가 베푸는 훌륭한 훈장을 받을만한 결과를 초래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는 물론이다. 말일 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이다. 그렇기에 담배도 피우지 않으며 술도 마시지 않고(커피조차도 들지 않는다)육을 하거나 다른 죄악에 물들지 않은 것이

다. 간호원과 결혼한 그는 슬하에 다섯 자녀를 두고 있다. 그는 자기의 혁혁한 전공에 교만하지 않고 조용히 국가가 제시하는 이상(理想)의 구현에 헌신하며, 나아가서는 그들의 생명과 나라를 수호하는 일에 전념하고 있는 것이다.

우수한 조종사요, 다재다능하며, 쾌활하며, 용기에 가득찬 사람이다. 현재는 독일에 기지를 둔 제 406 방공 전투단에서 F-102의 조종사로 근무하고 있다.

우수한 훈장 수여자로서의 자질을 쌓을 수 있는 뒤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우리는 그렇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다만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는 바이다.

아브라함과 죽음의 바다(死海)

박 찬 주



바벨론 근처에 우르라는 아름다운 도시가 있었어요. 이곳 사람들은 나무토막과 돌등으로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섬기며 나쁜일들만을 하며 살았어요.

이 마을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열심히 믿을뿐 아니라, 정당한 행동만하는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이것을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착한 아브라함도 나쁜 사람들 속에 섞이여 살면 반드시 나쁜 사람이 될 것”이라고 걱정 하시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에게 “아브라함아! 너는 곧 가족을 데리고 이곳을 떠나거라. 그리고 내가 명하는 곳으로 가거라. 나는 너희들을 내 백성으로 크게 소중히 여기겠노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와 아버지와 형과 조카와 또 많은 양과 소를 이끌고 갈 곳도 정하지 않고 집을 떠나서 걷고 또 걸었어요. 먹을 물도 제대로 없었으나 그들은 참고 기도하며 계속해서 걸었어요. 그 얼마후 가나안이란 곳에 막 도착 했을때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땅)을 너희 자손들에게 주기로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너무나 감사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행복하게 사는 동안 데리고 온 양과 소들은 새끼를 낳고 또 낳고 하여 아브라함은 부자가 되었어요.

그러던 어떤 무더운 여름 오후였어요. 아브라함이 문앞에 있는데 점잖게 생긴 손님 세분이 아브라함 곁으로 오는 것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공손히 “대단히 더운 날씨입니다. 들어오셔서 좀 쉬어 가지지요” 하며 손님들을 맞아들렸어요. 그중 한분이 점잖은 목소리로 “아브라함이어! 우리는 그대를 믿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것이다. 사실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들이다. 이제 우리들은 곧 소돔과 고모라라는 마을에 가서 거기사는 사람들을 모두 멸망 시키려하는데 그것은 그곳 사람들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나쁜 죄만 짓기 때문이라”라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소돔이란 마을에는 사랑하는 조카 롯이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아브라함은 떨리는 가슴을 겨우참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만일 소돔이란 마을에 정직한 사람 50명만 있다면 그 50명을 사랑하사 소돔성을 용서해 주실 수는 없으십니까?”라고 하였더니 “정직한 사람이 50명만이라도 있다면 소돔성을 멸망시키지 않기로 하겠다”고 대답 하셨어요.

“만일 50명중 10명쯤 부족하다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러면 40명 말이지. 용서하겠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마음이 불안하여 견딜 수가 없었어요.

“만일 정직한 사람이 30명 뿐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0명이라. 30명 이라도 넉넉할 것이다.”

“노하지 마십시오. 20명 뿐이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20명이라도 문제 없을 것이다.”

“아! 정말 노하지 마십시오. 만일에 15명만이라도 소돔을 사랑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응, 넉넉히 용서할 수 있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아직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견딜 수가 없었어요.

“선생님여!—부탁합니다. 한 말씀만 더 허락하소서. 만일에 훌륭한고 정직한 사람이 열명이 있다면 당신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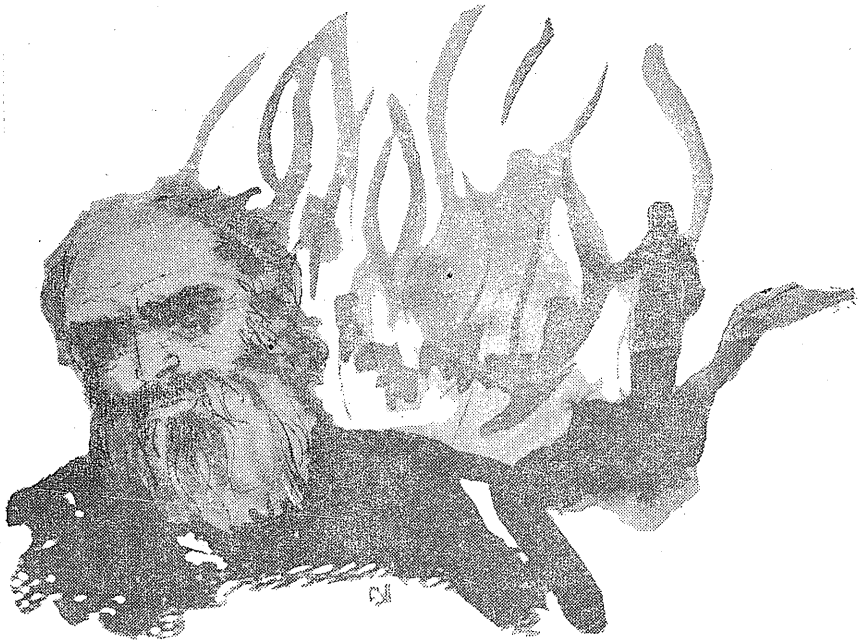
“열명만 있어도 용서할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한 없는 사랑에 깊이 감격 하였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안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나 소돔에는 훌륭한 사람이라고는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 한 사람 뿐이었어요.

저녁이 되고 어두워지자 천사들은 소돔 거리에 도착하였어요. 롯은 천사들을 마지하여 말하기를,

“이 거리에는 나쁜 사람들이 너무



나 많읍니다. 누추하지만 우리 집에서 쉬었다 가십시오” 하며 사양하려는 그들에게 롯은 자꾸만 간청을 하였어요. 그리고 롯은 정성을 다하여 저녁 식사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밖에서 소란한 소리가 났어요. 그 소린 강패들이 롯의 집을 찾는 소리였어요.

“바로 이집이지!” “응 그래 말두 없이 남의 동네에 함부로 들어온 놈을 잡아 내어야 해”.

롯은 뛰어나가 그들을 타일렀어요. “제발 조용히 해 주십시오. 우리 마을에 오신 손님이니까 정성껏 대접하여 드려야 합니다”하고 롯은 타일렀으나 타이르면 타 이를 수록 더욱 성을 내어 롯에게 달려들었어요.

이것을 보신 천사들을 그들을 모두 앞을 못보는 장님으로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리고 이어 롯에게 명하기를

“어서 빨리 가족을 데리고 이 마을을 떠나도록 하여라. 하나님께서 이 마을을 당장에 멸하실 것이다.” 롯은 걱정이 되어 사위의 집으로 가서 이 마을을 떠나라고 하였으나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므로 도리어 롯의 말을 업신 여기며 조롱만하고 있을 뿐이 었어요. 이때 천사들은 롯을 재촉 하였어요.

“자 빨리 도망을 쳐야 한다. 조금이라도 늦으면 너도 이 마을과 함께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절대로 뒤를 돌아 보아서는 안된다. 곧 바로 앞만 향하여 산으로 올라 가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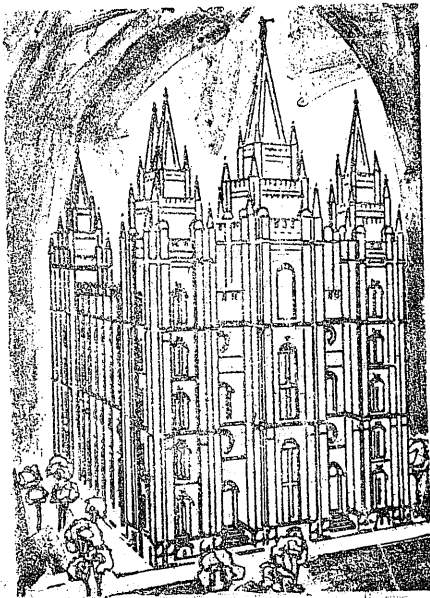
롯은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급히 달음질하고 있을 때 하늘에서는 붉은 빛이 번쩍거리며 불이 마치 소낙비 처럼 그 마을위에 내려 붓고 있었어요.

그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다보고

싫은 욕망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친구나 그밖의 사람들이 타죽고 있다는 것은 너무도 그를 슬프게 하였어요. 룯의 부인 사라는 천사의 말씀을 지킬 정도로 신앙이 충실하지 못 했었어요. 그가 천사의 말을 무시하고 뒤를 돌아다보았을 때 어느 사이엔가 사라는 소금 기둥으로 변해 버렸어요.

룯과 그의 두딸은 아브라함의 애원으로 목숨은 구원을 받았으나 전에 가지고 있던 많은 재물들은 하나도 없이 동굴에서 살게 되었어요.

이런 일이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 라는 마을은 죽음의 바다의 일부가 되었으며 바다는 너무 잔물이 되어 아무런 생물도 살지 못하게 되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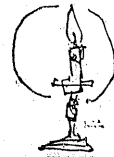
編輯後記

○ 용기 이상의 것을 보여준 피서 형제에 관한 기사는 군문에 서 수고하시는 형제님이나 수고를 감사하는 모든 분이 흥미 이상의 것을 느끼시며 읽으시리라 생각합니다.

○ “교회의 복장 표준”은 더욱 관심이 가져질 복장에 관한 판단에 보탬이 되어 주었으면 합니다.

○ 투고해 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와 투고된 원고 모두를 함께 실지 못함을 미안해하면서 봄 기운이 내도는 2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 3월호부터는 총본부 계획에 의해서 세계 공통의 잡지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발표를 기대하여 주십시오. (M)



일 반 용

물몬경.....	150원
물몬경(가죽표지).....	1,200원
물몬이란.....	100원
효과있는 가르침을 위한 계언.....	50원
찬송가.....	50원

주 일 학 교 용

그리스도의 생애.....	100원
기이한 업적(상권).....	50원
기이한 업적(하권).....	50원
말일성도란.....	100원
복음의 실천.....	100원
생활을 위한 그리스도의 이상.....	100원
생활에서 본 회복된 교회의 원리.....	150원
성전중의 지도자.....	100원
주님의 멍세이지.....	100원
주님의 멍세이지(교사 보조 교재).....	100원
회복된 교회의 역사.....	150원
이야기로 엮은 구약 성서.....	150원

상 향 회 용

강력한 지도력을 통한 인격 강화.....	20원
봉사 이삭줍기반 공과.....	100원
상향회 역원 지도서.....	50원
상향회 선교부 지도서.....	50원
선택의 밤(봉이반 공과).....	50원
장미반 공과.....	150원
지도 원리.....	50원

신 권 회 용

아론 신권회 지침서.....	20원
인간과 하나님.....	100원
집사 교문 지도서.....	150원
회복된 성교회.....	100원

유 년 주 일 학 교 용

우리의 종교생활(상).....	100원
우리의 종교생활(하).....	100원
주안에서 자라남.....	150원
복음안에서 자라는 어린이.....	150원
어린이 찬송가.....	100원

末日聖徒 예수 그리스도 教會

韓國宣敎部

(住 所 錄)

宣 清 雲 本 支 部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번지 ⑬ 3 9 9 5
東 東 大 門 支 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134의 19 ⑫ 1 0 0 5
三 清 支 部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 5번지 ⑫ 3 5 9 6
西 部 支 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58의 1 ⑬ 1 2 0 8
城 北 支 部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동 88의 13 ⑫ 0 7 4 4
新 村 地 域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동 177의 13 ⑫ 4 2 7 9
永 登 浦 地 域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량진동 54의 15
仁 川 地 域	인천시 인현동 20번지 태화제과 2층 ② 9 8 5 2
大 田 地 域	대전시 대흥동 440의 1 ② 6 2 7 3
大 邱 中 央 支 部	대구 삼덕동 2가 24번지 ② 6 6 5 9
釜 山 支 部	부산시 서구 동대신동 3가 95번지 ④ 7 0 7 1
東 區 支 部	부산시 동구 수정동 658의 10
光 州 地 部	광주시 금동 165번지 이발소 2층 ② 2 6 9 2
全 州 地 域	전주시 경원동 1가 58번지 2 8 1 9

一九六七年 一〇月 四日 公報부흥록 九三二

성도의 벗

發行日 1968年 1月 1日 通卷 第30號
 發行人 裴 一 文
 編輯人 洪 武 光
 發行所 末日聖徒 예수 그리스도 教會 韓國 宣敎本部
 印刷所 寶 普 齋 印 刷 所